



FENDI.COM/TIMEPIECES

**FENDI**  
TIMEPIECES

# Style

조선일보

DECEMBER  
2017 vol.166



TIFFANY & Co.

## SUBLIMAGE L'EXTRAIT

한 방울에 담아낸 수블리마지의 수블림 파워

샤넬이 창조한 강력한 스킨케어 트리트먼트. 작품과도 같은 이 한 병에 4주 만에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주는 고농축 오일 포몰러를 가득 담아, 바닐라 플라니폴리아의 끝없는 생명력을 농축해냈습니다. 한 방울마다, 궁극의 피부 보호 효과와 피부 강화 효과로, 당신의 피부는 다시 태어납니다. 부드럽고 탄탄하게, 경험해보지 못한 광채로 빛나는 아름다운 피부.

샤넬, 아름다움이 시작되는 곳



# CHA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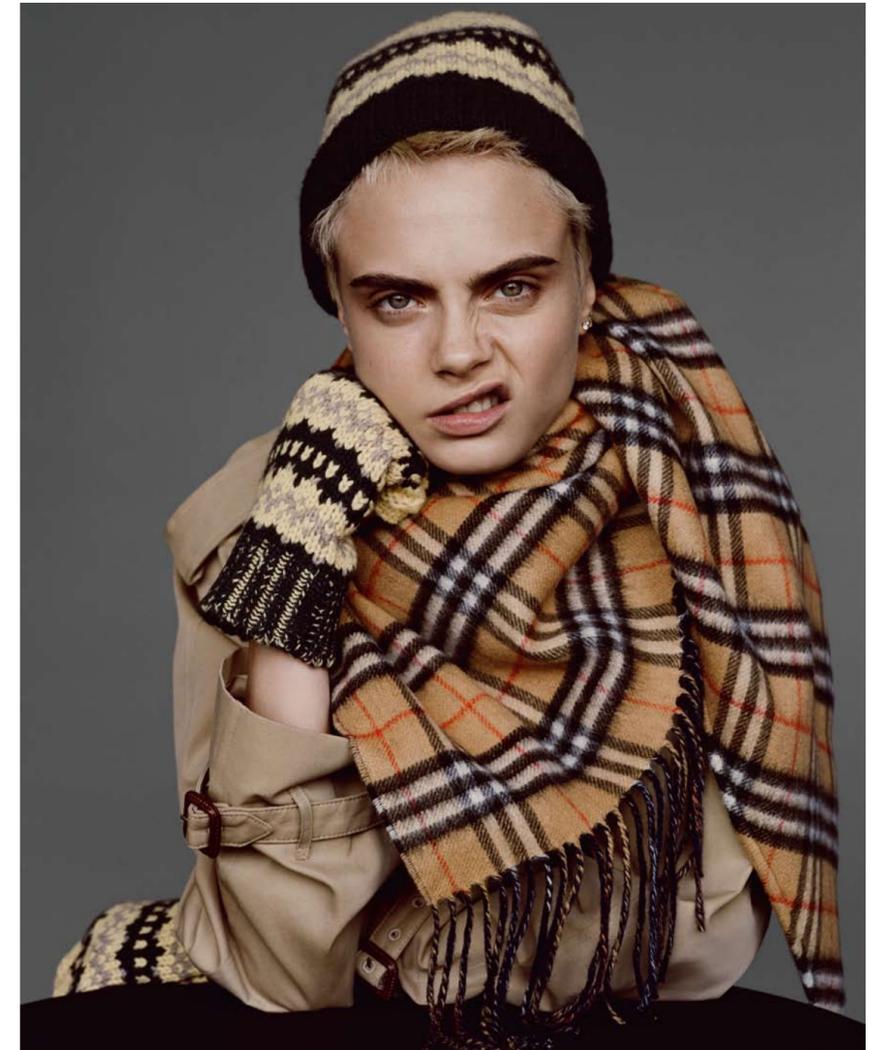
CHANEL.COM CUSTOMER CARE CENTER 080-332-2700



# BVLGARI

ROMA

DIVAS' DREAM  
BVLGARI.COM #BULGARIMAGNIFICENTTALES



**BURBERRY**



**MICHAEL KORS**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 가로수길 플래그십 스토어 MICHAELKORS.COM

**MONT  
BLANC** 

Montblanc Bohème Date Automatic.

몽블랑 보헤م 데이트 오토매틱





# LA FEMME PRADA

MILANO  
DAL 1913



**INTENSE**

THE NEW FRAGRANCE

#pradaintense



# L'HOMME PRADA

MILANO  
DAL 1913



**INTENSE**

THE NEW FRAGRANCE

#pradaintense





50



52



표지에 등장한 이미지는 1백80년 전행의 세계적인 럭셔리 하우스 티파니(Tiffany & Co.)가 연말 기프팅 시즌의 기쁨과 설렘을 담아 새롭게 선보이는 홀리데이 캠페인이다. 티파니 크리스마스(Tiffany Christmas)를 테마로 한 이번 캠페인은 각광받는 아트 포토그래퍼 로에 에드러지와의 협업을 통해 탄생했다. 문의 02-547-9488



36



18

- 22 **콘텐츠 변주의 진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요즘 대중문화 콘텐츠의 지형을 강력하게 수놓고 있는 트랜스미디어(transmedia) 스토리텔링 방식.
- 24 **GIFT GUIDE THE FASHION**
- 26 **GIFT GUIDE THE JEWEL**
- 28 **GIFT GUIDE THE WATCH**
- 29 **GIFT GUIDE THE BEAUTY**
- 30 **GIFT GUIDE THE LIVING**
- 31 **EDITOR'S PICK** (스타일 조선큐)가 추천하는, 올겨울 놓치지 말아야 할 뷰티 브랜드의 홀리데이 에디션.
- 32 **HARD CODE** 샤넬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시계, 코드 코코(CODE COCO).
- 36 **FIELDS OF COAT** 황량한 들판, 차갑고 스산한 공기, 한 해의 끝자락... 다시 겨울, 그리고 코트.
- 44 **FUN TO ATTACH** 더하면 더할수록 매력과 화려함을 극대화하는 개성 넘치는 패치워크 컬렉션.
- 45 **ICONIC CODE** 샤넬만의 새로운 코드, '코드 코코(CODE COCO)' 위치.
- 46 **PASSION FOR TOP OF TOP** 광범한 시계가 아닌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시계. 리처드 밀은 하이엔드 시계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47 **ALL I WANT FOR CHRISTMAS** 티파니 블루 박스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여성의 심장박동 수가 22%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를 들으면 적이 있는지?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을 위해 티파니에서 준비한 홀리데이 컬렉션.
- 48 **MODERN FLOWER** 하이힐부터 룩, 플랫폼까지 다양한 디자인으로 선보여 고르는 재미를 주는 2017 F/W 플라워 힐 컬렉션은 홀리데이 시즌, 당산을 빛내줄 단 하나의 슈즈다.
- 50 **TIME FOR THE OLYMPIC** 한국에서 개최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오메가에 28번째 올림픽이다. 올림픽과 스포츠에 보여준 열정을 국내에서 엿볼 날이 다가왔다.
- 52 **THE MOST HONORED WATCH** 지난 11월, 한국 시장에서 제2의 도약을 꿈꾸는 론진의 미래를 베이징에서 미리 엿보았다.
- 54 **TIME ARCHITECTURE** 스위스 워치 브랜드 미도(MIDO)가 언제 나처럼 유서 깊은 건축물과의 새로운 콜라보레이션을 알렸다.
- 55 **MERRY CRYSTAL** 그녀를 가장 돋보이게 해줄, 눈부신 반짝임이 돋보이는 스와로브스키의 크리스마스 기프트 컬렉션.
- 56 **ROMANTIC BUTTERFLY** 데코르테(Decor6)가 홀리데이 에디션으로 선보인 마르셀 반디스 컬렉션 2017 페이스 파우더.
- 57 **WINTER ESSENTIAL** 샤넬의 프리미엄 스킨케어 라인인 '수블리미자리엔' 겨울철 피부를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 60 **정관장의 스마트한 건강 제안 알파프로젝트 & 굿베이스** 1백18년 전통의 대한민국 건강 기능 식품 대표 브랜드 정관장이 만든 알파프로젝트와 굿베이스가 겨울철 건강관리와 연말 모임의 피로를 해결하는 처방전을 내놓았다.

# Style 조선큐 Issue.166 December 2017



**stylechosun.com**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 배미진 mjjin@chosun.com 에디터 | 권유진 yjkwon@chosun.com  
 에디터 | 이지연 easyear@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jinghyun@chosun.com 마케팅 | 박정하 yhpark@chosun.com 김준식 adjoons@chosun.com  
 박승현 shpark@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재판 | 새빛 그래픽스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큐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션은 비즈나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큐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각 두 번 발행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일로 발행됩니다.

(스타일 조선큐)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를,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골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큐)를 더욱 가까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큐)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Beyond Perfume

LOUIS VUITTON



프로로그래밍 박진주

### Jewel BE MY SIGNATURE

소장 가치 높은 단 하나의 아이템, 시그니처 브레이슬릿.

(유부터) 옐로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브랜드 로고를 다한 TCO 한티드 밴크 300만원대 **타피루**, 브랜드의 우아한 아름다움을 섬세하게 세팅한 백로트 브레이슬릿 895만원대 **비탈리아 리본**, 밴드 폭을 줄여 더 심플하게 연출할 수 있는 뉴 리본 브레이슬릿 4백30만원대 **가르피에**, 벨가리 이-슬림이 새겨져 있는 옐로 골드 벨가리 벨가리 브레이슬릿 8백만원대, 로즈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비제루원 브레이슬릿, 사이드엔 벨가리 로고가 새겨져 있다. 1천7백만원대 모두 **벨가리**, 에디터 **김미진**

### Hot Spot 대자연의 오롯이 누리는 힐링 투어, 할리언스 산마을

힐링을 부르짖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마음에 품어보았을 대자연으로의 일탈.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진정한 힐링 투어에 당신을 초대한다.



이층에 눈을 뜨지마자 천정에 난 창 너머 펼쳐진 푸르른 하늘이 가까이 다가오고, 일쪽달록 단풍이 든 종자산의 가을 풍경과 마주하게 된다. 전날 자연에서 보낸 하루가 벌써 아쉬워하는 이곳은 강원도 홍천군 종자산 자락에 위치한 할리언스 산마을 중에서도 굽이굽이 비탈길을 올라가야 닿을 수 있는 숲속동 빌라다. 힐링(healing)과 사이언스(science)의 합성어로 이름 지은 할리언스 산마을은 10년 전, 힐링 특화 리조트로 문을 열었다. 할리언스 산마을의 초장, 이시형 박사는 자연과의 조화, 의도된 불편함을 외치며 자연환경을 통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친환경 공간에서 자연 치유력을 높이도록 모든 것을 배려했다. 실제로 산마을 전체는 TV는 물론 휴대폰도 타지 않는 다크룸 디톡스 존이다. 또 산 중턱에 위치해 식당이나 카페 테라스, 짐(gym) 등의 시설을 갖춘 건물로 이동하려면 최소 5분에서 15분간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걸어야 한다. 처음에는 이런 불편함이 가득한 곳에서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할지 걱정이었지만, 그런 불편함도 잠시, 눈부신 자연경관에 마음이 편해지면서 도시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게으름을 털어내 신체적, 정신적 정화와 균형을 되찾고, 활력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전문 영양사가 준비해준 저염식 식단으로 재료 본연의 맛을 즐기며 건강한 한 끼를 음미할 수 있다. 마을은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있는데, 식당이 있는 볼동과 스파 등의 부대시설이 위치한 여름동, 웰빙 센터와 GX

룸, 뮤직 카페가 위치한 가을동, 그리고 호천사원과 갤러리가 있는 겨울동 등 공용 공간을 갖추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요가, 강,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곳에 머무는 동안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산마을 오픈 10주년을 맞아 더욱 알찬 구성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힘든 일상에 지쳐 몸과 마음, 정서까지 정화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휴식 공간을 찾고 있다면 할리언스 산마을을 방문하길 추천한다. 문의 1588-9983 에디터 **이지연**



장미 메이크업 박진주

### Beauty PARTY PLEASE!

데일리 메이크업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파격적인 텍스처와 컬러를 담은 메이크업 제품이 당신의 지루했던 일상에 반짝이는 재미를 선사한다. 홀리데이 시즌을 위한 스파클링 뷰티 아이템.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립스틱 마.아리엔 이 제품을 주목할 것. **슈메루트 루즈 언리미티드 글러터 립스틱**은 섀넬의 글러터 핑을 가득 담은 레이어링 립스틱으로, 다양한 립 제품과 레이어링해서 바르면 섀넬의 글러터 에센 립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다. 덧바를수록 화려한 글러터 효과가 배가되고 지속력 또한 뛰어난 **리니 홀리데이** 메이크업의 필수품(3.4g 3만7천원). 밤마다의 입술을 연상시키는 **디올 디오리픽 플 991 볼드 이메시스트**는 울감처럼 신명나게 발색되는 디크한 파플 컬러의 립스틱으로, 밝은 메이크업이나 액세서리 없이 립 메이크업만으로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3.3g 4만6천원). **어반디케이 헤비메탈 글러터 아리엔**은 극도로 화려한 굵은 실버 핑을 가득 함유한 촉촉한 젤 타입의 아이 메이크업 제품. 알고 정교한 브러시를 내장해 초보자도 손쉽게 화려한 스파클링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다(7.5ml 2만7천원). 홀리데이 한정판으로 선보이는 **디올 올 댓 글러터 5 골 퍼프 프레스스** 립은 리치한 텍스처와 함께 그린 계열의 팔레트가 어우러져 오묘하면서도 매력적인 아이 메이크업을 선사한다. 눈가에 부분적인 포인트로 사용해도 예뻐지만, 눈두덩 전체에 칠고 대담하게 발라볼 것을 추천한다(3g 8만7천원). **샤넬 옴브르 프리아미에 크림 822 실버 스크린**은 글러터 핑을 가득 담은 카키 컬러의 크림 블러셔로, 화려하면서도 깊고 그윽한 스모키 메이크업을 연출할 때 제격이다(4g 4만7천원). 눈에 보이는 컬러 그대로 발색되는 립글로스인 **나스 안 레이 포토그로스 립 라커 뮤즈**는 단독으로 바로면 유니크한 글러터 핑을, 섀넬 립스틱과 레이어링하면 화려하게 반짝이는 립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어 의외로 활용도가 높다(5.5ml 3만7천원). **어반디케이 문디스트 아이샤드 조디악**은 입체적으로 반짝이는 3D 메탈릭 핑을 함유해 실컷만 바라도 눈리를 정도로 화려하게 반짝이는 핑과 섀넬 핑을 느낄 수 있다. 특히 그린, 블루 등의 핑을 믹스한 조디악 컬러는 각도에 따라 오묘하게 빛나는 컬러가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다(1.5g 2만8천원). 에디터 **권유진**

# INSIGHT

편잡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스들.

### Focus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꿈을 이루는 공방, '쁘띠 아슈(Petit H)'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 에르메스는 기쁨을 만들고 남은 자투리 가죽 하나, 천 조각 하나 허투루 버리지 않는다. 에르메스의 장인과 아티스트가 모여 백이나 의상 등을 만들고 남은 가죽과 천 등을 활용해 또 하나의 오브제로 탄생시키는 방법을 고안해낸 것. 이는 에르메스의 대손인 파스칼 무사르(Pascal Mussard)의 아이디어로, 2010년 처음 '쁘띠 아슈(Petit H)'란 이름 아래 시작한 프로젝트다. 가방, 지갑 등을 만들고 남은 최고급 가죽이 아깝다고 생각한 그에게는 디자이너의 독창적인 사고방식을 통해 또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보고자 했다. 그해의 연금술과 같은 작업의 결과로 켈리 백에 쓰인 자투리 가죽은 스왑스푼 뼈구기 사계로 변신하고, 타슈 박스 등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쁘띠 아슈'는 프랑스 외곽인 팜탱(Pantin)에 위치한 아틀리에를 중심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에르메스의 파리 세브르 매장(17 rue de Sèvres, 75006, Paris)에서만 상설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 전 세계를 순회하는 특별 전시를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는데, 올해 3월 이탈리아 로마 이후 8개월 만의 글로벌 이벤트 장소로 한국이 선정되었다. 지난 11월 22일, 메종 에르메스 도산 파크는 서울에서 열리는 첫 '쁘띠 아슈' 전시를 위한 화제성 때문에 첫날부터 많은 고객과 프레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번 서울 전시를 위해 미디어 아티스트 장원두 작가가 계절의 변화와 아름다움을 미술적 선비로움으로 표현한 시노그래피를 선보이며, 메종 에르메스 도산 파크는 놀라움과 최신 효과가 돋보이는 카네이션의 마법 정원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매장 입구에는 에르메스가 한국 전시를 기념해 제작한 기념 가죽 호랑이가 방문객을 반겨주고, 프랜차이즈 우고 가토네(Ugo Gattoni)는 도산 파크 파우드에 새로운 드로잉을 추가로 선보이며 '쁘띠 아슈'의 서울 첫 전시를 축하해주었다. 또 지난 2월부터 메종 에르메스 도산 파크의 미스코트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미노의 거대한 버전도 함께 만나볼 수 있으나, 12월 17일까지 펼쳐지는 이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말 것. 문의 02-542-6622 에디터 **이지연**



# Coats!

## Max Mara, Seoul 2017

66 years of Max Mara history, an exhibition  
2017년 11월 29일 - 12월 1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알림 1관  
사전 예약 사이트 [kr.maxmara.com](http://kr.maxmara.com)

Photograph by Richard Avedon  
©The Richard Avedon Foundation

MaxMara



레트로 룩의 세드 재킷  
3백55만원, 포털 다태양 시즌  
가격 미정 모두 발리.

스타일링 아이템에  
불꽃을 더한 코디  
155만원 **카인스키**.

브랜드를 상징하는 리스타드  
스파이크 장식의 선글라스  
30만원대 **발렌티노 by  
룩스타카 코리아**.

홀리데이 카드가 들어 있는 가죽과 모노그램 캔버스 소재의 아트세 퍼우치  
50만원대 **루이 비통**.

가디언의  
아이들 팬더의  
얼굴을 형상화한  
캐릭터 인형  
1천5백만원대  
**가디언**.

스타일링에 유용한  
에스.티.의 새콤 매디터 이터전

# for him Selection

실용적인 코디네이션이 가득한 홀리데이 맨즈 컬렉션을  
제안한다.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베리 컬러 레이스업 슈즈  
1백55만원 **아. 테스토니**.

고기능 비올  
다태양이 선보이는  
가죽 벨트  
50만원대 **토즈**.

모노그램 캔버스 소재의  
1백55만원대 **발렌티노**.

선글라스 또는 안경을 수납할 수 있는  
케이스 29만원 **프라다**.

독특한 패턴이 돋보이는 반지갑 73만원 **자형시**.

베르노 디펜델의 스페셜  
세피랑 52만원 **구찌**.

강렬한 그린 컬러 베젤이 돋보인다. 투르비용  
메카니즘과 특허 받은 G 센서가 결합된 TM38-01  
G-센서 투르비용 바바 왓슨.  
가격 미정 **리처드 밀**.

강렬한 컬러 조합이  
돋보이는 페이퍼트  
소재의 코피 1백50만원  
**크리스찬 루부탱**.

바버티 고무의 트렌치 가죽 소재에  
스몰레시 패턴을 더한 D188 닥터 백.  
40X29.5cm, 3백90만원대 **바버티**.

고급스러운 양피질, 컬러 라메이  
2백90만원 **에스.티. 듀폰**.

구찌 1577-1921  
발리 02-3467-8935  
까르파에 1566-7277  
자형시 02-517-7560  
바버티 080-700-8800  
프라다 02-3218-5331  
토즈 02-3438-6008  
아. 테스토니 02-554-4310  
에르메스 02-542-6622  
루이 비통 02-3432-1854  
크리스찬 루부탱 02-541-8550  
리처드 밀 02-512-1311  
룩스타카 코리아 02-501-4436  
카인스키 XY 02-3433-6601  
에스.티. 듀폰 파리 02-2106-3596

링크 커프스 디테일의 올 재킷 가격 미정,  
블루 코트 셔츠 79만원, V넥 울 니트 87만원 모두 **구찌**.



HOTEL SHILLA ARCADE  
SHINSEGAE MAIN GANGNAM GENTUM CITY  
HYUNDAI MAIN COEX BULSAN DAEGU  
LOTTE AVENUE AVENUE WORLD TOWER  
GALLERIA LUXURY HALL EAST AK PLAZA BUNDANG STORE  
T 02-2230-1125 [WWW.COLOMBOVIADELLASPIGA.COM](http://WWW.COLOMBOVIADELLASPIGA.COM)

**COLOMBO**  
1955  
VIA DELLA SPIGA  
MADE IN ITALY



화려한 비즈 장식이 빛을 발하는 네크리스 699,800원 피비어나 팔라피.

클러터 소재의 리본 모티브 클러처. 27x15cm, 가격 미정 지미유.

잉터 커프스 디테일의 메탈릭 재질 액세서리 1백만원 구피.

진주 장식이 아우라진 핑크 클러처 소재 펠프스 1백50만원에 미우미우.

다크 그린 큐빅 청이 크리스마스 무드를 자아내는 브레이슬릿 59만2천원 판도라.

플라티넘스 소재의 브레이슬릿 17만6,500원 판도라.

크리스탈 장식의 앵글 스트랩 펠프스 3백20만원 쥬세페 자노티.

ASERBIA에 영감을 아시스트 아방 에티아지엔

육각 프레임의 주얼 장식이 화려한 선글라스 40만원에 돌체 앤 가버나 by 북스타카 코리아.

프랑스산 캐뉼 할리모 499,800원 피비어나 팔라피.

크리스탈린 7점으로 8백50여 개의 화이트 크리스탈을 세팅한 클러머리핀 디자인의 크리스탈린 퓨어 워치 63만원 스와로브스키.

구찌의 디자인의 골드 커브 벨을 골드 1백20만원 북스타카 코리아.

스타일링에 따라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골드 스카터 가격 미정 팔라피.

골드 색상의 귀스타브 노트 17만원에 루이비통.

브랜트 시디너치 가죽 벨을 연상시키는 키링 1백만원에 에베레스트.

시베리아의 야생 조류에서 영감을 받은 2012년 한정판 벨트.

피코트의 매혹적인 파티 룩으로 손색없는 핑크 클러처 드레스 2백80만원에 바버리.

# for her Selection

화려한 메탈릭 컬러와 반짝이는 크리스탈 장식만 더해도 연말에 어울리는 세련된 파티 룩으로 변신할 수 있다. 과감한 도전이 필요한 홀리데이 셀렉션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kim do hyun*

# DECORTÉ

현대백화점 입구정점 02-3438-6118 무역센터점(2F) 02-3467-8471 천호점 02-2225-8989 중점점 032-623-2151 판교점 031-5170-3194  
 신세계백화점 명동본점 02-310-5062 강남점(2F) 02-3479-6050 동대문점 053-661-1877 AK PLAZA 분당점 031-703-3478 롯데백화점 본점(B1) 02-772-3157 잠실점 02-2143-7976  
 온라인 쇼핑몰 Lotte.com/mall.shinsegae.com/Hmall.com/akmall.com/Lotteimall.com/cjmall.com/GSshop.com/thehyundai.com 고객센터 080-568-3111



# 콘텐츠 변주의 진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최근 케이블 채널 OCN은 흥미로운 시도의 결과물을 하나 선보였다. 그동안 OCN 오리지널 드라마에 등장한 인기 캐릭터를 만화로 재구현한 <오리지널 씬>이라는 동영상 형태의 TV 웹툰이다. OCN 채널은 물론 카카오 TV를 통해서도 공개한 이 TV 웹툰에는 <나쁜 녀석들: 악의 도시> 우재민(박중훈 분), <38사기동대> 백성일(마동석 분), <보이스>의 무진혁(장혁 분)과 강권주(이하나 분), <블랙>의 블랙(송승헌 분), 강하람(고아라) 등이 주요 캐릭터로 총출동했다. 화제몰이에 성공한 이 콘텐츠는 바로 요즘 대중문화 콘텐츠의 지형을 강력하게 수놓고 있는 트랜스미디어(transmedia) 스토리텔링 방식의 전략적 산물이다.

“그렇게 우려먹으니 좋나? 좋아?” 지난여름을 제대로 강타한 가수 윤종신의 역주행 히트 발라드곡 ‘좋나’에 이어 최근 가수 김민서의 답가 ‘좋아’ 역시 크게 인기를 얻자 일각에서는 이처럼 패러디 섞인 반응도 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좋나’의 여자 버전이 여러 나온 시점에 전략적으로 재활용해 성공한 사례가 ‘좋아’이기 때문이다. 전자가 이별 뒤 아픈 그리움을 토해낸 남성 화자의 노래라면, 같은 멜로디를 편곡하고 가사를 바꿔 여성 화자의 마음을 표현한 곡이 후자다. 단순한 변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좋은 멜로디와 섬세한 가사의 힘으로 떠난간 연인을 잊지 못하는 ‘찌질한’ 구남친의 감정과 미련 따위 버리고 갈 길 가려는 구여친의 정서를 담았기에 엄연히 2개의 히트 콘텐츠로 인정받았다. 대중문화 콘텐츠에서 감성의 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좋은 예이기도 하다. ‘제당의 미학’이라는 주장에 대해 윤종신을 잘 아는 팬들은 그저 묻어 가기가 아니라 가수 특유의 작업 방식이라고 반박한다. 실제로 윤종신은 똑같은 멜로디를 쓰면서 편곡을 달리한 ‘본능적으로’와 ‘이성적으로’를 세트라 내놓은 적이 있고, 본인이 부른 ‘나에게 간다’의 여자 버전인 ‘나에게 온다’를 옥주현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단지 좋나-좋아 사례처럼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거나 회자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사실 재활용이 뭐 어떤가? 콘텐츠가 소비되는 속도가 빠른 이 시대에 대중의 눈도장을 이미 찍어놓았다는 건 매력적인 자산 아닌가. 애초에 콘텐츠 과잉 시대에 주목받는 것 자체가 힘든 법이고, 그런 인지도 있는 콘텐츠를 갖고도 또다시 성공을 빚어내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사फल처럼 우려먹는다 한들 어떠랴? 그게 가능하기만 하다면, 사실은 대다수가 부러워할 능력이 아닐까. 그런데 요즘 극장가 풍경을 보면 스케일이 남다른 콘텐츠 변주의 달인이 눈에 띈다. 다음 아님 할리우드다. 사실 오늘날 콘텐츠 세상에서는 하나의 원석을 여러모로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콘텐츠가 여러 미디어를 넘나들면서 대중과의 호흡을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확장하는 흐름이 하나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 이듬하여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transmedia storytelling)’이다.

## 관심 경제(attention economy) 속에서 리스크 줄이기

최근 국내 극장가의 흥미진진한 대결 중 하나는 코믹스 기반의 할리우드 히어로물로 유명한 마블과 DC의 한판 승부다. 미국 코믹 북 양대 산맥인 마블의 <토르: 라그나로크>와 DC 코믹스의 <저스티스 리그>가 연이어 상영됐기 때문이다. <토르: 라그나로크>의 경우에는 ‘어벤저스(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등) 캐릭터 중 하나인 토르를 내세운 작품으로, 전작인 <토르: 천둥의 신>(2011), <토르: 다크월드>(2013)보다 흥행에 성공하면서 관객 5백만에 육박하는 좋은 성적을 냈고, <저스티스 리그>의 경우에는 마블의 어벤저스 군단에 대적할 DC의 야심작으로 원더우먼, 배트맨, 플래시, 사이보그, 그리고 히어로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슈퍼맨까지 출동시킨 만큼 ‘대박’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최근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부활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히어로물을 좋아하지 않는 이들이라도 할리우드 프랜차이즈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한 번쯤 궁금해한 적이 있을 것 같다. 어쩌서 따로, 또 같이 지겹도록 나오는 영웅 캐릭터들이 이처럼 꾸준한 인기들이, 적어도 화제물이랄 할 수 있는지? 물론 대규모 자본과 시스템, 배급력으로 대중문화 콘텐츠의 판을 움직이는 할리우드의 저력이라고 일축할 수도 있는 질문이다. 하지만 그 할리우드가 왜 이처럼 콘텐츠의 변주에 열을 올렸는지는 문화 콘텐츠 생태계의 비즈니스 논리와 결부돼 있는 사안이다. 아무리 잘나가는 할리우드라고 할지라도 그 본질은 결국 콘텐츠 흥수 속에서 살아남기, 그리고 경쟁자보다 우월하게 눈에 띄기다. <콘텐츠의 미래>에서 저자 바르트 아난드 교수는 미국의 TV 방송 채널이 40년 전에는 10여 개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9백 개가 넘는다고 했다. 또 1분마다 72시간 분량의 동영상 이 유튜브에 올라오고 3백만 개의 콘텐츠를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공유하며, 매일 23만 장의 사진이 인스타그램에 게재된다고 했다. 이처럼 인간의 ‘할거리’, ‘볼거리’가 점점 많아지는 디지털 시대에 대중의 관심을 붙들기란 쉽지 않다. 그런 면에서 이미 확고한 인지도와 팬층을 거느린 ‘킬러 콘텐츠’를 활용하는 건 ‘먹고 들어가는’ 게 기본으로 있기 때문이 아닌가. 더구나 제작비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리스크 높은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 그러므로 대작 한 편의 일회적인 성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속 편의 기본적인 흥행을 어느 정도 담보해주는 시리즈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꾸준한 캐시 플로를 가능케 하는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다. 할리우드가 하나의 콘텐츠로 영화, 드라마, 음악, 게임, 테마파크, 머천다이징 등 ‘원소스 멀티 유스(OSMU)’ 방식의 ‘해리포터’ 같은 프랜차이즈물에 집중 투자하는 건 어쩌 보면 당연한 행보다.

## 이제는 트랜스미디어 콘텐츠 시대?

그런데 전 세계 문화 콘텐츠 생태계를 장악해온 할리우드의 프랜차이즈 전략은 이제 단지 OSMU 차원이 아니라 ‘트랜스미디어 콘텐츠(transmedia contents)’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 OSMU는 성공한 원작 콘텐츠를 기반으로 스토리의 각색을 통해 순차적으로 다른 미디어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트랜스미디어 콘텐츠는 단계적이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각각의 콘텐츠가 개별적 세계를 표현하면서 통합적 세계가 창조되는 것을 뜻한다. 단지 하나의 콘텐츠가 다수의 미디어에 걸쳐 비슷하게 펼쳐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분화하고 변형되면서 확산되고, 다시 융합되는 유기체적 성격을 지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트랜스미디어 콘텐츠는 근본적으로는 하나의 스토리텔링에 기반을 두었다고 해도 그 형태자에 콘텐츠물의 내용이 같을 수도 없을뿐더러 캐릭터도 재배치된다. 미디어가 달라지고 작품이 달라지면서 주연이 조연이, 조연이 주연이 될 수도 있고, 다시

모든 인물이 복수의 주인공으로 출연할 수 있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생성된다(혹은 영화에서는 A가 주인공인데 모바일에서는 B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앞서 예로 든 <토르: 라그나로크>와 <저스티스 리그>도 마찬가지로 트랜스미디어 콘텐츠다. 예컨대 토르는 어벤저스 군단의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았지만, 솔로 무비인 ‘토르 3부작’을 통해 입지를 단단히 굳히면서 차기 어벤저스 시리즈에서는 활약이 기대된다. ‘열린 구조로 캐릭터가 성장하고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전체 시리즈물이 지속적인 인기를 끌 수 있는 지양분이 되는 셈이다. 트랜스미디어 콘텐츠를 학문적으로 정의한 사람은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커뮤니케이션학 교수 헨리 젠킨스(Henry Jenkins)인데, 그는 이상적인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에서 각각의 미디어는 저마다 최선의 역할을 수행한다면서 ‘독자성’을 강조했다. 하나의 스토리가 영화로 소개되고, TV, 소설, 그리고 만화로 확장될 수 있지만, 영화를 보지 않고도 충분히 게임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토리의 접점이 다양해 어떤 미디어를 먼저 접한다고 해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 사용자가 수동적 존재에 머물지 않는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산물

여러 미디어로 확장해나가면서 콘텐츠의 변주를 펼쳐내는 것만이 트랜스미디어의 매력의 전부는 아니다. 콘텐츠 사용자의 참여와 공유를 빼놓을 수 없다. 기존 미디어 세계에서는 누군가 스토리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면 사용자가 그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었지만, 이제는 사용자가 스토리를 함께 만들어나가고 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고, 이것이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특징이기도 하다. 팬덤(fandom), 팬픽션(fan-fiction), UGC(User Created[Generated] Contents) 등이 그 예다. 자주 인용되는 사례로 온라인 FPS 게임 ‘투 워(2WAR)’가 있는데, 이 게임을 홍보하기 위한 프랜차이즈 프로그램인 <노르망디의 이방인>을 보면 다큐멘터리 작가가 자신이 만든 오디오 드라마 파일을 도난당했음을 블로그에 알리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실제로 사용자들이 파일 찾기에 나서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이야기를 완성해나간다. 하구의 콘텐츠임에도 사용자들이 네트워크상에서, 심지어 실제 상황에서도 협업하게 만드는 힘을 발휘하는 배경에는 ‘관객의 투영’이라는 요소가 버티고 있다. 관객이 경제를 허물고 콘텐츠의 캐릭터에 적극적으로 몰입할 뿐더러 자신을 등장인물로도 여길 수 있는 변화된 콘텐츠 환경 덕분이다. 이처럼 참여도와 몰입도가 높아지다 보면 콘텐츠에 대한 애정도가 높아지는 건 당연지사. 트랜스미디어 콘텐츠를 가리켜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산물이라고 하는 이유다. 이처럼 트랜스미디어는 여러 미디어에 걸쳐 사용자들이 콘텐츠의 캐릭터와 비전과 감정을 공유하고 스토리를 쌓아가는 ‘열린 서사’를 지향하지만, 그런 변주 속에서 확실한 연대를 다

질 수 있게 하는 공통분모가 있다. 다양한 형태와 이야기로 가지치기를 해나가면서도 ‘세계관’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어벤저스의 캐릭터들이 게임이나 만화, 심지어 영화에서도 각자 따로 ‘놀더라도’ 결국 전체로 보면 어디엔가 있을지도 모르는 또 다른 세계(other worlds)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식이다. 그래서 마블의 ‘유니버스’, DC의 ‘유니버스’라는 표현이 존재하는 것이고 말이다. 그런데 실제로 콘텐츠 세계의 이러한 세계관은 과학 이론에도 뿌리를 두고 있다.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세계가 존재하고 인간 세상은 단지 ‘실제’라고 불리는 세계일 뿐이라는 독일 철학자 라이프니츠(Leibniz)의 ‘가능 세계(possible worlds)’ 이론이 오늘날 트랜스미디어 콘텐츠에 큰 영향을 줬다고 한다.

## 우려먹기와 창의적인 콘텐츠 변주, 한 곳 차이!

그렇다면 한국 콘텐츠 생태계의 트랜스미디어 현 주소는 어떻게? 이쯤에서 궁금해할만한 이슈일 것이다. 21세기형 트랜스미디어 콘텐츠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해준 기록제로 여겨지는 <메트릭스>, <블레이저>가 나온 게 벌써 1999년인데 말이다. 전문가들은 트랜스미디어라는 키워드 자체가 거대한 프레임에서 작동하는 글로벌 콘텐츠의 영역이므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한다. 액션, 무협, 공포, 판타지 정도로 특화된 장르가 아니라면 ‘세계관’ 운운하면서 캐릭터를 창출해나가는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혹자는 한국형 트랜스미디어의 단초는 윤태호 작가의 웹툰 <미생>이 제공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웹툰에 서 태동한 <미생>이 프리퀀(원작 작품 내용에 앞선 사건을 담은 속편) 형식의 모바일 무비로 먼저 제작되고 드라마로 확장되면서 유기적 콘텐츠로 이어졌는데, 결국 모바일 무비, TV 드라마가 모두 인기를 끈 사례다. 모바일 콘텐츠인 <미생 프리퀀>은 본편에 모두 담지 못한 등장인물 6명의 과거 이야기로 구성됐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대한민국 대중의 뇌리에 오래도록 자리해온 장수 콘텐츠 <무한도전>도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트랜스미디어 콘텐츠라는 의견도 있다. 콘텐츠 전문가 임희준 씨는 <문화콘텐츠와 트랜스미디어>라는 책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기획된 건 아니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무한도전 캐릭터와 스토리 월드가 구축됐고, 이러한 자산을 활용해 사진전, 가요제, 투표 등 파생 콘텐츠를 만드는 모양새가 트랜스미디어의 속성과 닮았다고 해석했다. 하나하나가 개별 콘텐츠로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활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말이다. 이 모든 과정이 캐릭터(출연자)와 시청자의 결속력을 강화해주므로 시청자는 단순히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참여자가 된다. 하지만 아직 중심이 되는 원전 콘텐츠와 그 세계를 공유하는 개별 콘텐츠와의 연계를 감안해 플랫폼과 장르를 넘나드는 트랜스미디어 콘텐츠를 성공적으로 ‘기획’한 국내 사례는 없다. 트랜스미디어의 세계를 개척할 토종 콘텐츠가 나오지, 그렇다면 그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지 궁금해진다. **글 고영민**

(왼쪽 스타일링 아이템) 퍼 트러닝 포켓 포인트 재킷 3백28만원, 캐시미어 니트 1백78만원, 브라운 니트 스카트 1백28만원 모두 **피비어나 필리피**, 문의 02-6905-3626

(맨 유틸리티 시계 방향으로) 투톤 컬러 누드 힐 96만원 **렌디**, 문의 02-2056-9023, 연한 핑크 컬러 토트백, 30X30cm, 1백65만원 **비오바오**, 문의 02-6905-3531, 필 장식 스웨이드 슈즈 1백90만원대 **로저 비비에**, 문의 02-6905-3370, 라스타드 스파이크 플랫폼 슈즈 1백19만원 **발렌티노 가바바나**, 문의 02-2056-4653



(왼쪽 스타일링 아이템) 캐시미어 코트 1백49만원, 니트 67만원, 퍼플 컬러 스카트 39만원 모두 **더 캐시미어**, 문의 02-3416-4397  
(맨 유틸리티 시계 방향으로) GG 마롱 토트백, 27X20cm, 3백40만원대 **구찌**, 문의 1577-1921, 태슬 장식 슬림은 48만원 **아. 테스토니**, 문의 02-554-4310, 페이스 장식 슬림은 89만원 **토즈**, 문의 02-772-3265, 오렌지 스웨이드 슈즈 70만원대 **살바토레 페라가모**, 문의 02-3430-7854, 옐로 미니백, 20X18cm, 2백80만원 **로저 비비에**, 문의 02-6905-3370



(왼쪽 스타일링 아이템) 구스 재킷 4백37만원, 셔츠 97만원, 이가킹 패브 니트 2백47만원, 팬츠 1백13만원 모두 **브루넬로 쿠치넬리**, 문의 02-3448-2931

(왼쪽 맨 유틸리티 시계 방향으로) 시아린 장갑 45만원 **브룩스 브라더스**, 문의 02-2052-8824, 펠트 테스타 와이 퍼니스 헤드폰 1백18만원대 **에르메네제르 제너**, 문의 02-3479-6297, 자수 슬림은 60만원대 **살바토레 페라가모**, 문의 02-3430-7854, 체크 울 캐시미어 오버사이즈 스카프 93만원 **비비에**, 문의 080-700-8800, 오렌지 컬러 니트 2백70만원대 **로로피아나**, 문의 02-546-0615



(왼쪽 스타일링 아이템) 오스퍼드 재킷 3백75만원, 니트 1백37만원, 네이비 팬츠 99만원 모두 **에르메네제르 제너**, 문의 02-3479-6297  
(왼쪽 맨 유틸리티 시계 방향으로) 푸쉬드 보이즈 클러치 백, 34X25cm, 1백49만원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배리 컬러 레터 스럽 슈즈 1백45만원 **아. 테스토니**, 문의 02-554-4310, 와인 컬러 브리프케이스, 38X28cm, 1백20만원 **스. 맨**, 문의 02-515-4068, 약가죽 벨트 98만원 **롤랜드 바이 델라 스파가**, 문의 070-7130-9206, 인투레치 토트백 캐시미어 포인트인 도쿠먼트 케이스, 35X24cm, 2백만원대 **로로피아나**, 문의 02-3438-7601

**Gift Guide**  
**THE FASHION**

홀리데이 무드를 만끽하게 해줄, 럭셔리 패션 하우스에서 제안하는 기프트 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스타일링 아이템) 브라운 코트 2백34만원, 터틀넥 60만원, 니트 베스트 80만원, 발레 팬츠 1백만원대 모두 **막스마라**, 문의 02-3467-8326  
(맨 유틸리티 시계 방향으로) 화이트 스니커즈 67만원 **아이벨 마랑**, 문의 02-516-3737, 가브리엘 미니 백, 18X11.5cm, 3백만원대 **사. 맨**, 문의 02-543-8700, 골드 메탈 간지오 미니 백, 20X16cm, 1백40만원대 **살바토레 페라가모**, 문의 02-3430-7854, 스타드 장식 첼시 부츠 1백88만원 **피비어나 필리피**, 문의 02-6905-3626



(왼쪽 스타일링 아이템) 시아린 베스트 3백60만원, 캐시미어 니트 베스트 2백80만원 모두 **미아미코야스 컬렉션**, 문의 02-546-6090  
(맨 유틸리티 시계 방향으로) 레터링 스터드 장식 캔 아이 백, 18X14.5cm, 2백85만원, 스트랩 85만원 모두 **렌디**, 문의 02-2056-9023, 레드 컬러 에트켓 백, 33X22cm, 2백50만원대 **프루다**, 문의 02-3218-5331, 핑칭 디테일 부츠 1백만원대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스몰레시 트랜치 가죽 파우치, 30X18.5cm, 88만원 **비비에**, 문의 080-700-8800, 포워드 메타스 미니 백, 20X15cm, 3백15만원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스타일링도 유망한 에르메네제르 제너의 캐시미어 니트 베스트 80만원, 발레 팬츠 1백만원대 모두 **막스마라**, 문의 02-3467-8326



(왼쪽 스타일링 아이템) 블루 컬러 구스 재킷 2백17만원, 오리 모피 니트 1백14만원, 베이지 면 팬츠 48만원 모두 **몽클레르**, 문의 02-514-0900  
(왼쪽 맨 유틸리티 시계 방향으로) 카키 클러치 백, 25X35cm, 1백49만원 **발리**, 문의 02-3467-8935, 구스 다운 머플러 32만원 **칼링스 쇼츠**, 문의 02-3438-6252, 모자 63만원 **발렌티노 가바바나**, 문의 02-2015-4653, 로고 프린트 메신저 백, 27X20cm, 2백55만원 **렌디**, 문의 02-2056-9023, 임탈 트리밍 모카신 1백만원 **토즈**, 문의 02-3438-6008

스타일링도 유망한 에르메네제르 제너의 캐시미어 니트 베스트 80만원, 발레 팬츠 1백만원대 모두 **막스마라**, 문의 02-3467-8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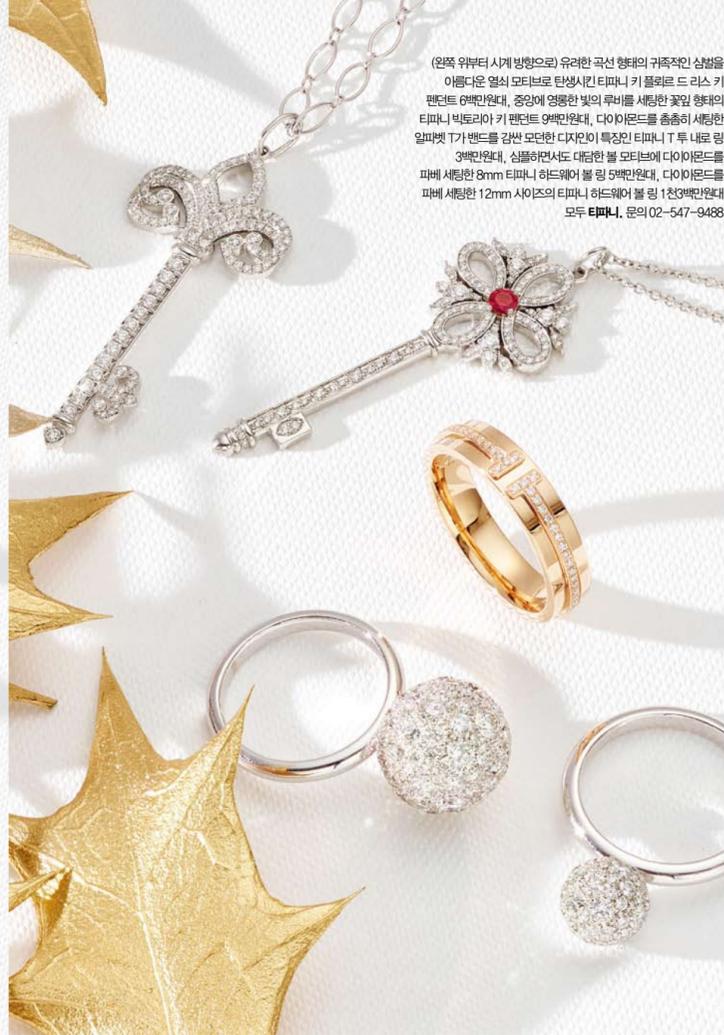
(왼쪽 스타일링 아이템) 구스다운 코트 1백25만원, 맨투맨 티셔츠 27만원, 기모 팬츠 35만원 모두 **칼링스 쇼츠**, 문의 02-3438-6252  
(왼쪽 맨 유틸리티 시계 방향으로) 린트 컬러 렌즈를 다한 이블브 컬러시 선글라스 모두 20만원대 **리야넌 by 루스타카 코라아**, 문의 02-501-4436, 스니커즈 65만원 **발리**, 문의 02-3467-8935, 골드 프린트 토트백, 36X38cm, 3백12만원 **구찌**, 문의 1577-1921, 카키 컬러 코트 백백, 36X40cm, 1백88만원 **발렌티노 가바바나**, 문의 02-2015-4653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모던한 직선 바 위에 6mm의 최상급 아코아 진주와 0.5카럿 다이아몬드를 나란히 세팅해 우아함을 강조한 밸런스 솔로 네크리스 1천1백만원, 남양 흑진주 끝에 지중빛 로돌라이트 가넷을 세팅해 강렬하고 유니크한 디자인을 선보인 리파인드 라벨리온 시그니처 링 3백90만원대, 타사카를 대표하는 아이프로 직선 바 위에 6mm 최상급 아코아 진주와 0.5카럿 다이아몬드를 나란히 세팅한 밸런스 솔로 링 9백만원대, 진주 끝에 보족한 형태로 세팅한 블랙 스파클을 더한 디자인으로, 취향과 스타일에 따라 앞뒤를 바꿔 착용할 수 있는 리파인드 라벨리온 시그니처 아이핀 1백90만원대 모두 **타사카**, 문의 02-3461-5558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시간을 초월해 사랑받는 오메가의 베스트셀러 여성 워치인 컨스텔레이션의 베젤 모티브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시킨 18K 레드 골드 컨스텔레이션 링 1백만원대, 40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함을 더한 18K 레드 골드 컨스텔레이션 다이아몬드 링 3백만원대, 다양한 사이즈의 링을 체인에 연결해 모던하면서 여성스러운 디자인을 완성한 18K 레드 골드 컨스텔레이션 브레이슬릿 1백만원대 모두 **오메가**, 문의 02-511-5797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유려한 곡선 형태의 귀족적인 심플을 아름다운 열쇠 모티브로 탄생시킨 티파니 키 콜렉트 드 리스 키 펜던트 9백만원대, 중앙에 영롱한 빛의 루비를 세팅한 꽃잎 형태의 티파니 빅토리아 키 펜던트 9백만원대, 다이아몬드를 촘촘히 세팅한 알파벳 T가 밴드를 감싼 모던한 디자인이 특징인 티파니 T 투 내로 링 3백만원대, 심플하면서도 대담한 볼 모티브에 다이아몬드를 피베 세팅한 8mm 티파니 하드웨어 볼 링 5백만원대, 다이아몬드를 피베 세팅한 12mm 사이즈의 티파니 하드웨어 볼 링 1천3백만원대 모두 **티파니**, 문의 02-547-9488



(위부터) 시퀀스다운 하트 모양 꽃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피베 세팅한 프리벨 컬렉션 펜던트 1천4백만원대, 신성한 꽃인 연꽃에서 영감을 받아 불꽃같은 디자인을 완성한 로타스 컬렉션 아이링 1천2백만원대, 크리스마스 시즌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이는, 볼스아이 원색으로 장식한 빈티지 알함브라 펜던트 4백60만원대 모두 **빈클리프 아메**, 문의 00798-852-16123

Gift Guide

# THE JEWEL

보는 것만으로도 설레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처럼 눈부시게 반짝이는 주얼리아말로 홀리데이 시즌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그녀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을 럭셔리 주얼리 브랜드의 기프트 제안.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컬러감이 선명한 말라카이트, 카날리언, 라피스 라줄리, 머더오브밀을 세팅해 포인트를 준 볼가리 볼가리 롱 네크리스 1천3백만원대, 깊고 풍부한 그린빛의 제이드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플립형 볼가리 볼가리 로즈 골드 링 4백만원대, 기하학적인 부채꼴 모티브에 그린 컬러의 말라카이트와 다이아몬드를 더해 우아하면서도 화려함을 강조한 다바스 드림 네크리스 5백만원대, 세계적인 스타 건축가인 자하 하디드가 디자인해 화제가 된 기하학적이고 유연한 곡선이 특징인 비저로원 디자인 라운드 4밴드 링 2백만원대, 영롱한 빛을 내는 단아하고 깨끗한 이미지의 머더오브밀이 돋보이는 다바스 드림 네크리스 2백만원대 모두 **볼가리**, 문의 02-2056-0171



(왼쪽 아래 시계 방향으로부터) 사물의 상징적인 X자 플팅 패턴을 더한 볼드한 디자인의 베이지 골드 코코 크래쉬 다이아몬드 링 8백90만원대, 화이트 골드 코코 크래쉬 미디엄 링 3백95만원대, 코코 크래쉬 링을 축소해놓은 듯한 아이링 3개를 커프스 형태로 연결해 독특한 디자인으로 재탄생시킨 코코 크래쉬 아이링 7백20만원대, 화이트 골드 코코 크래쉬 스몰 링 2백90만원대, 옐로 골드 코코 크래쉬 스몰 링 2백80만원대 모두 **샤넬 화인 주얼리**, 문의 02-3442-0962

에르메 빌라진, 필루진, 아이린 에이스티트, 필루시



(왼쪽부터) 행운과 희망, 열정적인 미래, 성공 등을 상징하는 그린 컬러의 말라카이트 원석을 세팅해 몸에 차고 있는 것으로도 행운의 부처 역할을 해주는 특별한 주얼리인 아몰레트 드 까르띠에 네크리스 2천1백만원대, 강렬한 에-차와 가넷, 자메 등을 상징하는 오렌지 컬러의 카날리언 원색으로 포인트를 준 아몰레트 드 까르띠에 네크리스 2백50만원대, 선인장에서 모티브를 얻은 대담하고 유니크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라투스 드 까르띠에 네크리스 5백10만원대, 라투스 까르띠에 링 5백30만원대 모두 **까르띠에**, 문의 1566-7277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피아제의 아이클린 포제션 모티브에 30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와 2개의 카보숑 컷 카보숑을 세팅한 18K 핑크 골드 포제션 오픈 밴글 9백90만원대, 30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와 2개의 라피스 라줄리 카보숑 세팅이 아름다운 18K 핑크 골드 포제션 오픈 밴글 7백90만원대, 2개의 카보숑 카보숑 원색으로 볼드하고 존재감 있는 원형 펜던트를 완성한 포제션 롱 네크리스 5백40만원대, 알고 심플한 밴글 디자인으로 다른 주얼리나 워치와 레이어링했을 때 더욱 빛을 발하는 18K 핑크 골드 포제션 오픈 밴글 3백30만원대 모두 **피아제**, 문의 02-540-2297



(위부터) 여성미를 한껏 부각하는 피아제의 상징적인 베젤 디자인이 돋보이는 32mm 라포르아트 갈라 여성 워치. 18K 핑크 골드에 62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4천300만 원대 **피아제**, 문의 02-3440-5656. 낮과 밤이 바뀌는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한 데이 & 나이트 인디케이션이 특징인 34mm 보헤미안 데이 & 나잇 여성 워치 6백76만 원 **몽블랑**, 문의 02-2118-6053



(왼쪽부터) 다이얼을 통해 더욱 강력해진 파워메트 80 무브먼트의 파워풀한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는 트래디션 오픈 하트 남성 워치 85만 원 **티소트**, 문의 02-3120-8237. 프랑스 원에 워터proof 오페라하우스의 둥근 건축물을 형상화한 비문셀의 프리즈야 여성 워치. 다이얼에 세팅한 51개의 다이아몬드와 25개의 머더오브달 조각으로 완성한 영롱한 빛의 큐브 페타이 아름다다. 1백30만 원대 **미도**, 문의 02-3479-6230

# Gift Guide THE WATCH

홀리데이 룩을 돋보이게 할 매력적인 시계는 물론, 소중한 시간을 함께한 고마운 이에게 전하는 품격과 실용성을 갖춘 워치까지, <스타일 조선일보>에서 엄선한 기프트 워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위부터) 크로노그래프는 물론 24시간 월드 타임존, 파워 리저브, 문페이즈 기능을 갖추어 하이엔드워치에선 워치 마니아는 물론 출장이 잦은 비즈니스맨에게도 제각각 42mm 롤진 마스터 컬렉션 남성 워치 4백만 원대, 부드러운 세이프의 진사석형 케이스와 18K 핑크 골드와 스테인리스 스틸 콤비로 이루어진 브레이슬릿이 우아함을 극대화하는 론진 돌비타 여성 워치. 베젤에 46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함을 더했다. 3백만 원대, 모두 론진, 문의 02-310-1597



(위부터) 베스트셀러 여성 워치 중 하나로, 우아하고 클래식한 세드나 골드 & 스틸 콤비 디자인이 돋보이는 컨스텔레이션 여성 워치 5백만 원대, 클래식하고 중후한 맛을 드러내는 그레이 컬러의 다이얼, 깔끔한 바인텍스의 세드나 골드 베젤의 조화가 멋스러운 글로브 마스터 에뉴얼 컬렉션 남성 워치 1천3백만 원대 모두 **오메가**, 문의 02-511-5797

에디터 배민진, 김유진, 이재은  
출판인 김민서, 김민서  
기획부 김민서, 김민서  
02-3749-1829  
02-3749-1829  
02-3749-1829



**Romantic Scent**  
(위부터) 몽블랑 레전드 스페셜 에디션 남성 향수 몽블랑의 아름다운 세트로 완성한 인디펜던트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시킨 우아한 보틀이 특징. 블루 그라데이션 컬러에서 느껴지는 스피어 민트와 그린애플, 라임 등 프레시한 향조가 어우러진다. 100ml 10만2천 원, 문의 080-800-8809 **프리카다 라플레르 인텐스 여성 향수** 프리카다 특유의 사피노 가죽을 다룬, 반원 형태의 보틀 디자인이 멋스럽다. 향긋한 투베로즈의 플로랄 향과 상큼하고 싱그러움 오렌지 플라워가 풍성하게 어우러진다. 100ml 22만 원, 문의 02-3443-1805 **존버베르스 에디션 퓨어 남성 향수** 신선하고 맑은 느낌의 우디 시트러스 계열로, 내추럴한 라벤 소재에서 영감을 받은 등나무 꼬인 장식 보틀이 돋보인다. 125ml 11만3천 원, 문의 02-3443-1805

# Gift Guide THE BEAUTY

홀리데이 시즌을 맞이해, 가까운 지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물하기 좋은 뷰티 아이템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Prestige Cosmetic**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리프레시 라인 아쿠아셀션 파워 듀오** 데이 크림과 나이트 크림, 두 가지 트리트먼트 기능을 포용하기 하나의 패키지에 담긴 유인원 제품으로, 낮부터 밤까지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외부 스트레스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50ml 44만 원, 문의 080-511-6626 **샤넬 수블라미지 라 크렘 텍스처 파인** 바닐라-로즈-로즈가 성분 미묘하고 탄력 있는 피부로 가꿔주며, 실드 사틴질 이펙트하고 가벼운 텍스처가 특징이다. 50g 48만 원, **샤넬 수블라미지 라 브릴 미스트**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지닌 바닐라-로즈-로즈가 워터 성분으로, 얼굴에 뿌리는 즉시 즉각적인 블러밍 효과와 윤기 있는 피부를 선사한다. 18ml 스프레이 보틀, 리플용 3개 32만 원, 문의 080-332-2700

에디터 배민진, 김유진, 이재은  
출판인 김민서, 김민서  
02-3749-1829  
02-3749-1829  
02-3749-1829



**Daily Skin Care**  
(위부터) 시슬리 시슬리를 남성용 인티메이징 스킨케어 남성 피부용 위한 인티메이징 효과와 함께 진정 효과가 뛰어난 아피터 세이브로도 활용할 수 있다. 50ml 26만 원, 문의 080-549-0216 **아티스트리 유스 인스텐드 울트라 리프팅 크림** 레드 캐비어 컨센트레이트와 안티 체리 뿌리 추출물을 함유해 피부에 축적된 손상을 마이크로 클렌징에 피부를 맑게 해주고 건강하고 생기 있게 가꿔준다. 50ml 12만 원, 문의 1588-0080 **데코르테 오이스처 리프소좀 울라데이 리미티드 에디션** 브랜드의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피부 친화력이 뛰어난 인지질 성분의 다중층 리프소좀이 수분과 영양을 피부 깊숙이 전달해 촉촉함을 오랫동안 유지시키는 파스트 에센스. 85ml 19만5천 원, 문의 080-568-3111



**Makeup Collection**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조르지오 아르마니 마에스트로 아르마니 투고 쿠션** 출시와 동시에 품질 대란을 일으킨 파운데이션의 명가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빨간 쿠션. 피부 위에 퍼블릭으로 부드럽고 밝게 피부를 선사하고, 뛰어난 커버력으로 유광형 피부를 완성한다. 15g 8만9천 원, **조르지오 아르마니 홀리데이 팔레트** 레드 케이스와 골드 레어링이 어우러진 홀리데이 팔레트. 소장 가치가 높다. 열 가지 컬러의 아이섀도우와 두 가지 컬러의 크림 컨실러, 실긋한 피부로 구성된다. 24g 16만 원, 문의 080-622-3332 **시슬리 후프 팀 스텝스** 크레임을 연상시키는 장미 사이즈의 립 맨슬로, 글로스 효과와 함께 뛰어난 발림성을 자랑한다. 2.5g 4만8천 원, **시슬리 인스텐드 에클라** 잔잔한 필 인지가 피부를 빈틈이게 만들고, 실드처럼 매끄러운 세안 후, 피부의 심한 광채 메이크업을 완성해준다. 30ml 9만 원, 문의 080-549-0216

# editor's Pick

〈스타일 조신일보〉가 추천하는, 올겨울 놓치지 말아야 할 뷰티 브랜드의 홀리데이 에디션.

(왼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다올 디오리피 매트 플루이드 틴트 007** 보석같이 예쁜 패키지로도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홀리데이 에디션. 촉촉한 플루이드 타입의 틴트로 입술에 톡톡 찍어 버리면 끈적임 없이 매트하고 보송보송하게 마무리된다. 발색력이 굉장히 뛰어나 가볍게 바르면 청순하고 생기 있는 데일리 립 메이크업을, 입술 라인까지 꼼꼼히 채워 버리면 섹시하고 팝한 파티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다. 10ml 5만원대. 문의 080-342-9500\_by 에디터 권유진

**대상다마 매지프레스 홀리데이 컬렉션 스노우엔** 단 2분만 투자해, 섀베는 크리스마스 내일을 완성할 수 있는 대상다마의 홀리데이 컬렉션. 앙증맞은 눈사람 모티브 메인으로 레드와 블루, 반짝이는 스노글로브가 장식된 다양한 디자인으로 구성해 기원의 취향에 따라 사랑스러운 크리스마스 내일 연출할 수 있다. 9천원대. 문의 0502-090-0000\_by 에디터 이지연

**람돔 골드 왓더스 입술퀴 루즈**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골드 글리터로 가득 찬 한정판 패키지로 앙증맞은 입술퀴 루즈. 부드럽고 예쁘게 밀착되는 텍스처로 입술에 묻힘 없이 발리고, 과하게 번들거리지 않고, 너무 매트하지도 않은 딱 예쁜 광택감을 발휘해 화사하면서도 우아한 자켓팅 핑크 립 메이크업을 연출한다. 3.4g 4만2천원대. 문의 080-001-9500\_by 에디터 권유진

**조르지오 아르마니 홀리데이 컬렉션 골드 레터링 레드 컬러 케이스 에11** ARMANI 골드 레터링을 새긴 특별한 케이스로 소장 욕구를 자극한다. 2단 구성 팔레트로 1단은 스몰클링 색도 다섯 가지 컬러와 시크한 매트 색도 다섯 가지 색상으로, 2단은 실카한 피우다와 함께 두 가지 세토드의 크림 컨실러로 이루어진 팔레트다. 이 제품 하나만 있으면 베이스 메이크업부터 색조 메이크업까지 완벽하게 연출할 수 있다. 24g, 16만원대. 문의 080-022-3332\_by 에디터 이지연

**캘리포니아 컬렉션 메테오리트 골드 펄 피우다** 엔틱한 주얼리 케이스를 연상시켜 안티어 오브제에도 손색이 없는 이 제품은 캘리포니아는 전설의 제품이자 베스트셀러인 메테오리트 골드 펄 피우다의 홀리데이 에디션 모델. 한번 써본 사람은 이 피우다만 수년간 고집할 정도로, 피부에 고급스럽고 우아한 반짝임을 선사한다. 20g 9만1천원. 문의 080-343-9600\_by 에디터 권유진

**프리미 슈가 로제 립 트리트먼트** 천연 생령에 오일과 왁스를 더해 가볍게 발리자면 깊은 보습감을 선사하는 립 트리트먼트. 바짝 마른 입술도 순식간에 촉촉하게 만들어 주기에 몇 개월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다. 워터성 차단 효과까지 있어 더욱 실용적이다. 4.3g 3만6천원. 문의 080-822-9500\_by 에디터 배미진

**슈우파루 비바리주시 제품 핑크 2017 홀리데이 리미티드** 슈우파루의 시그니처 컬러인 핑크와 골드 컬러 메이크업이 돋보이는 홀리데이 무드 가득한 보틀이 인상적이다. 만년필과 거드너, 바닐라의 깊고 풍부한 향의 조화가 로맨틱하고 달콤한 분위기를 선사한다. 100ml 13만9천원. 문의 02-3443-1905\_by 에디터 이지연

**나스 안 레이 2017 홀리데이 기프팅 컬렉션 더 베일리 컬렉션** 캔디퍼뮤투 하이라이팅까지 연필 파티 룩을 위한 다양한 핑크 컬러로 구성된 트리오 팔레트. 패션 사가나 안 레이의 대담한 미니멀리즘과 아이코닉한 유즈들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케이스가 돋보인다. 골드 시마를 가미한 선 위시 디퓨징 브로저 라구나 피우다와 새틴 워터 엠브 컬러의 리미티드 치크 컬러, 브로즈 로즈 색상의 하이라이터로 구성된다. 11g 6만2천원. 문의 02-6905-3747\_by 에디터 이지연

**슈우파루 X 슈우파루 드로잉 맨슬 M 브릭 브리온** 너무나도 반가운, 추억의 슈우파루 등장 패키지에 새겨진 캐리비안 보고도 환송을 장식한 만큼, 이번 홀리데이 시즌에 생애최선을 일으킬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그중 앙증맞은 바섯 캐리비안 그래픽 브릭 브라운 컬러의 드로잉 아이 맨슬은 크리피하고 부드러운 텍스처로 아이라인을 쉽게 그릴 수 있고, 피부에 착 달라붙어 지속력이 뛰어나다. 브라운 컬러 외에도 포인트 메이크업으로 예쁜 핑크, 라이트 옐로우 등도 출시되어 선택할 수 있다. 2g 2만7천원대. 문의 080-022-3332\_by 에디터 권유진

**볼카리 골데아 더 로만나이트 펄 비드로진** 새콤과 로진 중간 정도의 텍스처가 특장인 섹시한 비드로진. 흡수력이 빠른 것은 물론 보습 효과도 뛰어나다. 겨울철에 특히 더 건조해진 피부에 꼭 쓰여야 하는 제품이다. 향도 은은하고 미세한 골드 펄 입자가 매력적이다. 100ml 5만1천원. 문의 080-990-8888\_by 에디터 배미진

**바이레도 세인트 앙서 캔들** 인들과 진실, 자애와 은총 등을 상징하는 기도용 양초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시킨 바이레도 세인트 캔들 컬렉션의 세 가지 향 중 하나. 오래된 나무 가구를 연상시키는 목재향 나무 향이 은은하게 퍼진다. 크리스마스를 떠올리게 하는 고급스러운 글라스 케이스가 홀리데이 무드를 한껏 고조시킬 것이다. 240g 9만원대. 문의 02-3479-1688\_by 에디터 이지연

**데코르테 AQMW 페이스 피우다 야마릴 뷰티** 아기 피부같이 보얗고 보송보송한 피부를 연출하는 페이스 피우다. 옅거나 실크 피우다 성분을 함유해 모공을 막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지 컨트롤 기능이 뛰어나고 자외선 차단과 심도를 광학적으로 보정해주는 피부를 표현한다. 홀리데이 한정판으로 선보이는 골드 컬러의 예쁜 패키지는 덩이다. 20g 6만7천원대(캐릭터 5g과 세트) 문의 080-568-3111\_by 에디터 권유진

**에스티 로더 로즈의 꿈 메탈 캠퍼트** 매년 새로운 홀리데이 컬렉션을 선보이는 에스티 로더의 아름다운 캠퍼트. 마치 보석처럼 고귀한 울화의 컬렉션은 주얼리 디자이너이자 시크릿이 모니카 리치 코신과 컬래보레이션해 탄생시켰으며, 정교한 입자의 로즈 골드 피우다를 담았다. 에스티 로더 여사가 생전에 남긴 영감을 각인한 것도 특별하다. 25만원. 문의 02-3440-2772\_by 에디터 배미진



## THE LIVING

선물을 받는 이와 주는 사람 모두를 만족시킬,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을 센스 있는 리빙 아이템을 소개한다.

남성 타이 무늬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시킨, 다양한 색상과 패턴으로 이루어진 타이 세트 테이블 세트 80만원대(각 14만원)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글라스 양쪽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컵뿐 아니라 캔들 홀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진 71만원대 **생루이**. 문의 02-3749-6252

독특한 삼각형 케이스가 돋보이는 벤츄라 컬렉션 탄생 6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벤츄라 스피리토 워치 2백21만원 **해밀턴**. 문의 02-3467-8361

다올 디오리피 매트 플루이드 틴트 007 보석같이 예쁜 패키지로도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홀리데이 에디션. 촉촉한 플루이드 타입의 틴트로 입술에 톡톡 찍어 버리면 끈적임 없이 매트하고 보송보송하게 마무리된다. 발색력이 굉장히 뛰어나 가볍게 바르면 청순하고 생기 있는 데일리 립 메이크업을, 입술 라인까지 꼼꼼히 채워 버리면 섹시하고 팝한 파티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다. 10ml 5만원대. 문의 080-342-9500\_by 에디터 권유진

대상다마 매지프레스 홀리데이 컬렉션 스노우엔 단 2분만 투자해, 섀베는 크리스마스 내일을 완성할 수 있는 대상다마의 홀리데이 컬렉션. 앙증맞은 눈사람 모티브 메인으로 레드와 블루, 반짝이는 스노글로브가 장식된 다양한 디자인으로 구성해 기원의 취향에 따라 사랑스러운 크리스마스 내일 연출할 수 있다. 9천원대. 문의 0502-090-0000\_by 에디터 이지연

람돔 골드 왓더스 입술퀴 루즈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골드 글리터로 가득 찬 한정판 패키지로 앙증맞은 입술퀴 루즈. 부드럽고 예쁘게 밀착되는 텍스처로 입술에 묻힘 없이 발리고, 과하게 번들거리지 않고, 너무 매트하지도 않은 딱 예쁜 광택감을 발휘해 화사하면서도 우아한 자켓팅 핑크 립 메이크업을 연출한다. 3.4g 4만2천원대. 문의 080-001-9500\_by 에디터 권유진



액션캠에 특화된 프로세서 GP1을 장착해 UHD 수준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기차하고 싶은 소중한 순간을 영상 또는 사진에 담아 오렌지색 간직할 수 있는 액션캠 하이라이 6 블랙 59만원대 **고프로**. 문의 02-480-5500



세련된 그린 컬러 보더 브랜드 시그니처 가죽인 베지터블 렌더 레더 디테일을 가미해 모던함과 클래식한 모두를 충족시킨 노바 컬렉션 25인치 79만원 **하트만**. 문의 02-3448-5914

분리 가능하며 앞뒤 컬러가 달라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트레이 테이블. 50X50cm, 81만원 **브라더 크루거 by 오노베사**. 문의 02-3463-7752

공간에 포인트가 되어줄 자주색 패브릭 라운지 체어 1천백만원대 **칼 한센&손 by 에이투스**. 문의 02-3785-0860



# hard Code

샤넬 워치 탄생 30주년을 맞은 올해, 새로운 시계가 등장했다. 여자라면 반드시 기억할 샤넬 2.55 백의 잠금장치를 담은 워치, 바로 샤넬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드 코코(CODE COCO)다. 시선을 사로잡는 켈트 패턴 브레이슬릿의 잠금장치를 작동하는 순간, 새로운 워치가 등장한다. 이중적이고 의미심장한 매력을 담은 코드 코코, 그 특별한 매력.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 sponsored by CHANEL



“샤넬에서는 창작물에 하우스 코드를 자유자재로 담아내요.  
하나의 코드가 또 다른 코드를 이끌어내죠.”

— 비지니 비야르, 샤넬 패션 스튜디오 디렉터 —



“샤넬의 멋은 영원을 담아야 한다는 생각과 허식을 버리는 데서 나오지요.  
이러한 코드를 한데 섞어 스타일을 완성하는 겁니다.”

— 안나 푸글리리스, 영화배우 겸 샤넬 앰배서더 —



“샤넬 여성은 표준화된 규격에 자신을 맞추지 않아요.  
거침없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죠.”

- 루치아 피카, 샤넬 메이크업 및 컬러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 -



“버클을 한 번만 누르면 다이얼을 숨기거나 드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비밀스러운 존재가 되었어요.”

- 데니스 겐즈 에르구벤, 타기 출신 프랑스 영화 감독 -

코르코에는 불변하는 샤넬의 코르 세 가지가 담겨  
있다. 마드모아젤 샤넬이 1955년 2월에 첫선을 보인  
2.55 컬링 백에 달린 버클과 팔링 디자인, 다이아몬드가  
바로 그것. 코르 코코라는 이름처럼 주얼리이자 시계,  
그리고 하우스 코드를 담아낸 이 아름다운 신제품은  
언뜻 보면 반짝거리는 브레이슬릿을 손목에 착용한 듯한  
모습을 연출한다. 하지만 작은 바늘은 시계라는 코드를  
뚜렷하게 상징한다. 이것이 바로 코르 코코의 진정한  
콘셉트다. 문의 080-200-2700 에디터 배미진





브라운 무튼 재킷 가격 미정 베버리, 카키 니트 톱, 머플러, 스트라이프 셔츠 모두 가격 미정 마이클코어스 컬렉션, 버건디 하이웨이스트 팬츠 가격 미정 스탠라 메카트니.



레드 퍼코트, 레드 터틀넥,  
니트 톱, 레드 팬츠 모두  
가격 미정 막스이라, 퍼 토트백  
가격 미정 토즈, 레드 플립스  
가격 미정 스텐아트 와이즈먼.

# Fields of Coat

황량한 들판, 차갑고 스산한 공기, 한 해의 끝자락... 다시 겨울, 그리고 코트. *photographed by kim yeong jun*

브라운 무툼 베스트 가격 미정  
클로에, 베이지 코트 3백20만원,  
토티백 3백40만원 모두 로에베,  
네이비 터틀넥 가격 미정 N21.



베이지 버튼 코트, 하이웨이스트 팬츠 모두 가격 미정 스텔라 매카트니, 베이지 롱 코트 3백20만원 로에베, 베이지 체크 셔츠 69만원 버버리.

브라운 퍼코트, 플리츠  
롱 원피스, 브라운 벨트 모두 가격  
미정 **보태가 베네타**, 플라워 비즈  
장식 사이하이 부츠 가격 미정  
**스튜디오 와이즈민**.

저글 패딩, 원 숄더 니트 등,  
칼렛 펜츠, 파플 벨트  
모두 가격 미정 **나나 리저**.  
브라운 원단 베스트 가격 미정 **클로에**.  
앵클 부츠 1,800,000 원 **로저 비비에**.



블루 더플코트 가격 미정 **마르니**,  
 카빙 디테일의 블루 코트 가격 미정  
**포츠 1961**, 체크 셔츠와 스카프  
 모두 가격 미정 **사카이**, 블랙 롱부츠  
 가격 미정 **스튜어트 와이즈먼**.



핑크 퍼스매 코트, 니트 터틀넥 모두 가격 미정 **클로에**, 체크 팬츠 가격 미정 **포츠 1961**, 앵클부츠 1백90만원 **로저 비비에**.

헤어 이길중  
 메이크업 서은영  
 모델 강소영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만스미라 02-3467-8326  
 토즈 02-3438-6008  
 스텔라 매카트니 02-6905-3680  
 로아베 02-6905-3470  
 바버리 080-700-8800  
 마이클코어스 컬렉션 02-546-6090  
 본태가 베네타 02-3438-7601  
 스텔라 매카트니 02-6905-3991  
 마르니 02-3479-6013  
 사카이 02-3479-6173  
 클로에 02-543-1737  
 포츠 1961 02-3449-5944  
 로저 비비에 02-6905-3370  
 나나 라치 02-6905-3627  
 N21 02-3449-5946

# Fun to atta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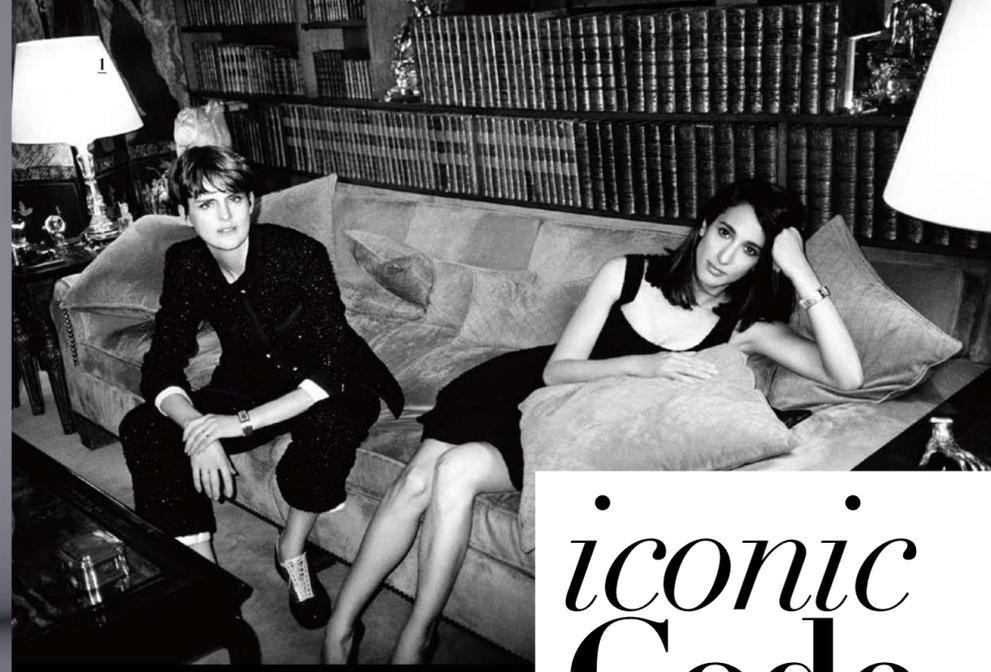
이번 시즌은 많은 패션 디자이너들이 다양한 가죽과 패브릭을 정교하게 오려 붙이는 재미에 푹 빠졌다고 할 만큼 여러 소재를 믹스 매치한 패치워크 아이템이 강세다. 누가 더 정교하게, 누가 더 유틸리티 있고 세련된 컬러와 소재를 매치했는지 경쟁하듯이 그야말로 패치워크 아이템이 쏟아진 것. 더하면 더할수록 매력과 화려함을 극대화하는 개성 넘치는 패치워크 컬렉션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 영소가죽과 소가죽, 올백가죽으로 패치워크해 유니크한 디자인을 완성한 벨트 버클 디테일의 앵글부츠 3백만원대 **프라다**, 알타리아의 피아톤 패치와 화이트 알라스트를 패치워크한 캠프스 1백60만원대 **생 로랑**, 몬드리안의 직방을 연상시키는 격자무늬 패턴으로 숭고시각가죽과 벨트 가죽을 패치워크한 에디션 백, 2백20만원대 **십비토레 파라키모**, 상징적인 모노그램 모티브를 플라워 패치 장식으로 재해석해 디자인한 레드 컬러의 트윙스트 백, 23116cm, 5백20만원대 **루이 비통**, 로고 장식 및 다양한 패턴을 따라 각기 다른 컬러와 소재의 가죽을 믹스해 보헤미안 무드를 완성한 슬더백, 풍성한 퍼스트랩을 더해 더욱 유니크하다. 25x18cm, 2백70만원대 **마우미우**, 스냅 잠금장치를 사용해 다양한 디자인의 가죽 패치를 부착할 수 있는 에디션 스니커즈 90만원대, 스니커즈에 부착한 눈 모티브의 플라톤 포 러브 패치 28만원 모두 **구찌**, 패브릭 소재의 일라스트 패치 장식을 다한 핸드 케이스의 박스 클러치, 15x20cm, 2백35만원 **올림피아 르 탭 by 10 코르소 코모**, 에디터 권유진

프라다 02-3218-5331 생 로랑 02-549-5741 십비토레 파라키모 02-3430-7854 루이 비통 02-3432-1854 마우미우 02-3218-5331 구찌 1577-1921 10 코르소 코모 02-3018-1010

스타일링: 유현정  
 아사시토 미사영, 김은서  
 타이틀: 정호영 02-749-2213



## iconic Code

샤넬 2.55 백의 아이코닉한 코드와 샤넬의 스토리를 고스란히 담은 특별한 주얼리이자 워치가 등장했다. 바로 시간을 초월한 샤넬만의 새로운 코드, '코드 코코(CODE COCO)' 워치다.

### 샤넬 워치의 새로운 이름, 코드 코코

"코드 코코는 단순한 주얼리나 시계, 그 이상의 무엇입니다." 모델 스티라 테넌트, "버클을 돌리는 것만으로 다이얼을 숨기거나 드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비밀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죠." 영화감독 데즈 겐즈 에르구엔, "코드 코코 워치에서 가브리엘 샤넬이 만들어낸 코드를 찾는 일이 정말 좋아요." 영화배우 겸 가수 알마 조도로보스키, "코드 코코 워치에는 샤넬을 특별하게 만드는 모든 디테일이 담겨 있어요." 샤넬 모든 부문 마천루이징 크리에이션 및 개발 매니저 야스미리

이 페이지의 화보에 등장하는, 샤넬 코드 코코 워치를 각각 자신만의 스타일로 멋지게 착용한 인물루면서 여성들이 남긴 코멘트다. 흑백 화보 속 우아하고 시크한 그녀들의 손목 위에서 은근하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샤넬 코드 코코 워치는 그녀들의 표현처럼 시계 그 이상의 가치와 코드를 담은 특별한 제품이다. 주얼리이자 시계임과 동시에 하우스 코드를 대변하는 코드 코코는 언뜻 보면 반짝이는 팔찌를 착용한 듯하지만,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샤넬 고유의 코드와 스타일을 고스란히 반영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브레이슬릿에는 1955년 마드모아젤 샤넬이 탄생시킨 2.55 백의 퀵링 패턴을 섬세하게 세공했고, 다이얼 중심부에는 이 시계의 아이코닉한 코드인 2.55 백의 버클 장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 한 번의 클릭으로 우아하고 부드럽게 회전하는 이 특별한 잠금 버클은 여단음에 따라 작은 2개의 시곗바늘이 모습을 드러내고 감추면서 코드 코코의 비밀스러운 시간을 나타낸다. 더불어 손목에 가볍고 부드럽게 감기며 시계 다이얼에 착 밀착되는 특별한 퀵링 브레이슬릿은 코드 코코가 주얼리이면서도 시계이자, 샤넬 하우스의 코드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요소다. 이처럼 극도로 모던하고 우아한 샤넬의 코드를 담은 코드 코코 워치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기본 모델부터 베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모델, 워치 전체에 다이아몬드를 풀 파베 세팅해 화려함을 극대화한 제품까지, 단숨에 시선을 사로잡는 다양한 버전으로 여성을 흥분다. 시계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매력적인 코드 코코 워치는 샤넬 워치 & 화인 주얼리 웹사이트와 부티크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80-200-2700 에디터 권유진



1 가브리엘 샤넬의 아파트에서 촬영한 화보로, 코드 코코를 착용한 모델 스티라 테넌트의 영화감독 데즈 겐즈 에르구엔, 2 코드 코코의 광고 모델인 모델 스티라 테넌트, 3 배우 안나 무글리보스키, 4 배우 알마 조도로보스키, 5 샤넬 메이크업 및 컬러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루치아 피카, 6 7 여러 개를 착용해도 멋스러운 주얼리이자 시계, 샤넬 코드 코코,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다양한 버전을 선보인다, 8 배우 알마 조도로보스키와 뮤지션 겸 모델 엘리스 밀렐.

(왼쪽부터) 중상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RM 023,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 배젤이 돋보이는 RM 016.

# Passion for top of t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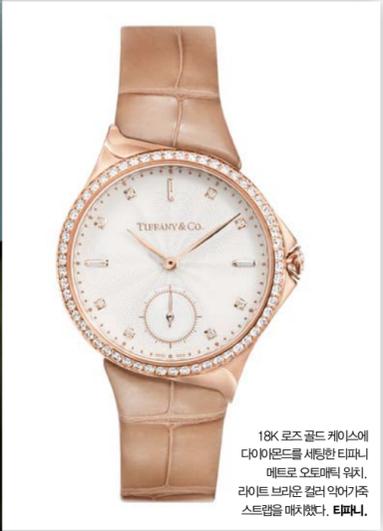
창립자 리처드 밀은 그저 평범한 시계가 아닌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는 시계를 원했다. 관습을 깨는 혁신적 기술, 예술미를 담은 디자인, 편안한 착용감의 삼박자를 갖춘 리처드 밀의 시계에는 그의 꿈이 오롯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의 꿈 덕분에 리처드 밀은 하이엔드 시계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이엔드 위치메이킹의 새로운 패러다임, 리처드 밀 리처드 밀의 시계는 F1 레이스 카에 자주 비유된다. 도발적이고, 혁신적이며, 예술적인 데다 소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양철난 기술력을 필요로 하고 개발을 위해 쏟아붓는 비용과 시간은 천문학적이다. 타 브랜드와의 비교가 아닌 차별을 원하는 브랜드 리처드 밀(Richard Mille)은 말레니움의 시작과 함께 2001년 해상차량 등장했다. 창립자 리처드 밀의 아니셀을 붙인 최초의 모델 RM 001 투르비용은 신생 브랜드임에도 업계 최고 가격인 20만 유로였지만, 수백 건의 주문이 이어져 위치메이킹 역사에 이례적인 사건으로 기록됐다. 그 이후로도 매년 강렬하고 혁신적인 시계를 내놓으면서 지금은 하이엔드 시계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꾼 브랜드로 인식을 다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는다'는 브랜드의 원칙이 자리한다. 하나의 시계를 개발하기 위해 경쟁사나 마진을 토대로 생산 비용을 결정해야 하는 기존 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개발 비용이나 시간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보이지 않는 부품까지도 손으로 마감하고 제품 하나를 완성할 때까지 부품 중 40%가 버려질 정도로 완벽을 추구하는 것. 애초에 다수의 보편적 취향보다는 희소성과 개성을 추구하는 최상위 애용자를 위해 한정 수량만 수작업으로 완성하기에 더욱 특별하다. 최첨단 소재에 도전하는 것도 리처드 밀만의 강점이다. 미 우주항공국(NASA)에서 소재를 얻어 만들거나 카본 TPT(카본 필라멘트를 8배 층으로 쌓아 고온 고압에 응축시킨 소재, 알루미늄-규소-탄소 합금인 알루시(alusic) 등 자동차나 항공우주에 사용하는 소재를 시계에 적용하는 식이다. 이는 시계의 중량을 줄이고 보다 인체 공학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다. 삼미적인 부분을 통해 가치를 더하는 일은 말할 것도 없다. 시계의 다이얼만 봐도 리처드 밀의 저품질을 단번에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답다. 이토록 기술적, 미학적으로 완벽한 시계의 착용감은 어떻게 의구심이 생긴다면 걱정할 필요 없다. 창립자 리처드 밀은 시계는 '손목 위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2의 피부처럼 편안하고 가벼운 시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덕분에 고객들에게 일단 한번 차보면 다른 시계는 절대 할 수 없게 될 테니 주의하라고 일러줄 정도라고.

독보적 유니크함을 지닌 리처드 밀의 세 가지 모델 리처드 밀에는 표준 모델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의 모델을 개발할 때마다 명확한 콘셉트를 먼저 생각하고, 그에 맞는 구성 요소를 정한다. 테니스 선수 파피엘 나달, 카베에서 펠리페 마사, 육상 선수 요한 블레이크 같은 스포츠 스타를 비롯해 성형, 양자경 등의 유명 배우들이 파트너십을 맺고, 리처드 밀을 선택한 것은 독보적인 유니크함과 희소성, 기능적인 완벽함에 매료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리처드 밀의 매력은 엿볼 수 있는 세 가지 모델을 지금부터 만나보자. RM 63-01 디지털(RM 63-01 Dizzy Hands)는 프

랑스 낭만주의의 대가 제라르 드 네르발(Gerard de Nerval)의 시 '시온(Le Temps)'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시킨 기계식 타임카피다. '시온은 한자를 놀라지 못하지만 한자는 시온에 웃을 것이다. 한자만이 이 시간을 사용할 줄 알기 때문'이라는 문구에서 영감을 얻어 새로운 개념의 컴플리케이션 제조 기술인 디지털 핸드 메커니즘을 완성한 것이다. 크라운을 누르면 디스크가 천천히 회전하고, 이와 동시에 핸드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크라운을 다시 누르면 작동이 중지되며 시파이어 소재 디스크와 핸드가 현재 시간으로 돌아온다. 첫바퀴처럼 돌아가는 알상에서 잠자리도 벗어나는 듯한 기분을 선사하고자 한 것. 시와 분이 표시되고 5N 골드 로터와 디지털 핸드 기능을 갖춘 자동 와인딩 스킵레틀 무브먼트 'CRMA3'은 레 브뤼레(Les Breuleux)의 시계 엔지니어들이 자체 제작했다. 시계 제작의 기본 원칙을 재창조하는 이 콘셉트를 실현하기 위해 시와 분의 기능을 분리하는 고도의 기술을 적용한 것은 물론, 최고의 예술적 결과물을 완성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시계는 RM 023 오토매킵이다.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은 모델 RM 010을 바탕으로 남성성과 여성의 이중성을 환기하는 자유로운 형태를 콘셉트로 삼아 남녀 모두가 착용 가능한 유니섹스 위치로 완성했다. 리처드 밀이 추구하는 필수적인 품질인 강도, 가벼움, 인체 공학적인 형태를 구현한 모델로, 케이스 디자인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래픽적인 요소의 배열을 따라 타원형으로 놓인 로마숫자 인덱스, 한층 가벼워진 핸드가 아닌 스프링에 잘 어울리면서도 손목을 한층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 RM 016 오토매킵 엑스트라 플랫은 리처드 밀의 전형적인 토너형을 벗어난 직사각형 케이스 모델이다. 오직 케이스 디자인과 구현을 위한 연구와 드로잉에만 4백 시간 이상 소요되었고, 2백2개의 별도 가공 작업을 거쳤다. 그 덕에 손목의 곡선을 따라 뻗은 케이스로 완성되었다. 기존에는 무브먼트의 두께에 맞춰 시계 두께를 결정했지만, 이 모델은 아주 얇고 평평한 시계를 제작하는 데 초점을 두고 무브먼트를 설계했다는 점이 이색적이다. 그에 맞는 초박형 스킵레틀 무브먼트 RMAS7 칼라버를 개발해 장착했다. 문의 02-512-1311 에디터 이지연

1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은 모델 RM 010을 유니섹스 위치로 재해석한 RM 023 오토매킵. 다이아몬드 베젤 세팅 버전으로도 만날 수 있다. 2 리처드 밀 고유의 토너형에서 벗어나 직사각형 케이스로 디자인된 RM 016은 얇고 평평한 시계를 제작하기 위해 초박형 무브먼트 RMAS7 칼라버를 개발, 장착했다. 3 42.7 x 11.7mm 사이즈로, 디지털 핸드는 새로운 개념의 컴플리케이션 제조 기술을 접목한 RM 63-01 디지털(RM 63-01 Dizzy Hands).



18K 로즈 골드 케이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티파니 메트로 오토매킵 워치. 라이트 브라운 컬러 악어가죽 스트랩을 매차했다. 티파니.



무한한 미래의 가능성을 여는 8원칙적인 메시지를 담은 티파니 키 컬렉션 펜던트 모두 티파니.

# all i want for Christmas

티파니 블루 박스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여성의 심장박동 수가 22%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을 위해 티파니에서 준비한 홀리데이 컬렉션.



다이아몬드와 다양한 컬러의 골드가 시크한 아름다움을 선보이는 Tiffany T Two 링 모두 티파니.



마이크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꽃잎을 형상화한 빅토리아 키 펜던트 티파니.



뉴욕의 아름다운 건축물에서 모티브를 얻은 Tiffany T Two 밴글. 측면에 잠금장치가 있어 손쉽게 착용 가능하다. 모두 티파니.



체인 링크와 다이아몬드가 어우러져 독창적인 디자인을 완성한 티파니 하드웨어 라지 링크 브레이슬릿. 18K 로즈 골드 소재다. 티파니.



다양한 사이즈의 볼과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디자인으로 레이아웃의 미학을 느낄 수 있는 티파니 하드웨어 볼 링 모두 티파니.



스틸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티파니 메트로 2-핸드 워치 모두 티파니. 문의 02-547-9488 에디터 베이진

# Modern flower



“아름다움은 모방할 수 있지만 편안함은 모방할 수 없다.” 살바토레 페라가모

1927년, 작은 구두 공방에서 탄생한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살바토레 페라가모. 현재는 남녀 모두를 위한 토틸 웨어를 선보이며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빅 브랜드로 성장했지만, 그 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페라가모의 본류는 발에 꼭 맞는 편안하고 아름다운 슈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만 컬레가 넘는 방대한 슈즈 아카이브를 바탕으로, 매 시즌 특유의 모던함과 여성미를 겸비한 컬렉션을 선보이는 페라가모는 이번 시즌 아카이브 모델에서 영감을 받은 매혹적인 플라워 힐로 슈즈 라인에 힘을 실었다. 하이힐부터 물, 플랫폼까지 다양한 디자인으로 선보여 고르는 재미를 주는 2017 F/W 플라워 힐 컬렉션은 홀리데이 시즌, 당신을 빛내줄 단 하나의 슈즈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이좌 위 왼쪽부터) 블랙 & 골드 리본 장식의 플라워 하이힐 펌프스 8.5cm 79만원, 리본 모티브가 포인트인 우아한 보르도 컬러의 플라워 하이힐 펌프스 5.5cm 79만원 모두 **살바토레 페라가모**. (오른 위 왼쪽부터) 입체적인 리본 장식을 다룬 베이지 컬러의 페이턴트 플라워 하이힐 펌프스 5.5cm 79만원, 색다른 블랙 벨벳 소재의 플라워 하이힐 스티레토 10cm 79만원, 사랑스러운 피치 컬러의 페이턴트 플라워 하이힐 펌프스 5.5cm 79만원, 메탈릭한 살버 컬러의 플라워 힐이 특징인 그레이 스웨이드 플라워 하이힐 펌프스 8.5cm 73만원, 플라워 패턴의 실크 스퀘어를 뒤어 연출하는 리본이 컬러의 플라워 하이힐 샌들 10cm 1백19만원 모두 **살바토레 페라가모**.

92자 함자 보예(02-517-6326)



© sponsored by Salvatore Ferragamo



1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경쾌한 록을 완성할 플라워 힐 물 1cm 69만원, 신뜻한 플라워 패턴을 다룬 리본 장식의 플라워 힐 발레리나 슈즈 1cm 79만원, 블랙 & 골드 컬러의 리본 장식이 포인트인 플라워 힐 발레리나 슈즈 1cm 77만원, 로맨틱한 핑크 컬러의 벨벳 플라워 힐 물 1cm 73만원, 편안한 실루엣을 선사하는 블랙 벨벳 소재의 플라워 힐 스텔라 슬리퍼 1cm 73만원, 입체적인 리본 디테일이 돋보이는 베이지 컬러의 플라워 힐 스티레토 1cm 77만원 모두 **살바토레 페라가모**. 2 2017 F/W 플라워 힐 컬렉션 광고 비주얼. 3 2017년 페라가모의 여성 컬렉션 총괄 디렉터 폴 앤드루가 아카이브 모델을 재해석해 완성한 플라워 힐 스케치. 4 플라워 힐의 시초인, 1939년 할리우드 여배우를 위해 제작된 컬럼 힐.

## 전설적인 페라가모 아카이브의 재탄생, 플라워 힐 컬렉션

슈즈 역사상 최초의 웨지힐과 인비저블 슈즈를 창조하고, 오드리 헵번을 위한 맞춤 구두인 오드리 플랫폼 슈즈부터 메릴린 먼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영화 <7년 만의 외출>의 명장면에서 그녀가 신은 샌들까지, 구두의 역사와 한 시대를 풍미한 유명 인사들의 발에는 늘 페라가모 슈즈가 함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발에 꼭 맞는 편안하고 완벽한 구두를 창조하기 위해 일생을 바친 구두의 전설이자 천재 디자이너 살바토레 페라가모는 1만 개가 넘는 기록적인 슈즈 컬렉션을 보유하고 그와 브랜드 페라가모의 명성을 고스란히 증명한다. 페라가모의 아이콘인 오드리 슈즈, 바라 슈즈처럼 탄생 시대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모던하고 개성 있는 디자인이 특징인 페라가모의 많은 슈즈 아카이브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재해석되어 선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페라가모 빈티지 슈즈 디자인에 현대적이고 트렌디한 요소를 접목한 새로운 아이콘을 출시해 슈즈 마니아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바로

1939년 할리우드 여배우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컬럼 힐(Column Heel)'에서 영감을 받은 플라워 힐 컬렉션이 그 주인공. 4개의 원통형 코르크 조각으로 만든 컬럼 힐의 단면이 마치 꽃처럼 보인다는 것에 착안해 '플라워 힐'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매혹적인 골드빛 플라워 힐 컬렉션은 여성스럽고 차분한 컬러 팔레트와 다양한 디자인으로 착용하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깔끔하고 베이직한 펌프스부터 페라가모를 상징하는, 리본 모티브를 더한 펌프스와 플랫폼, 슬리퍼까지, 이 모든 슈즈에는 볼륨감 있는 플라워 힐을 접목해 독보적인 개성을 뽐낸다. 특히 지난 시즌부터 메가 트렌드로 등장한 물 디자인은 맨발에는 물론 컬러감 풍부한 양말과 함께 워트 있는 룩을 완성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이다. 소재 역시 페이턴트, 소가죽, 벨벳, 스웨이드 등 다양하게 선보여 선택의 폭을 넓혔으니 이제 본인의 취향과 스타일에 맞게 선택하는 일만 남았다. 다채로운 디자인과 소재의 플라워 힐 컬렉션은 온라인 공식 사이트



트 후는 전국의 페라가모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02-3430-7854 에디터 권유진

# time for the Olympic



2 단순한 시계 브랜드의 홍보 활동이 아니다. 1932년부터 2032년까지 올림픽 공식 타임키퍼로 1백 년간 활약할 예정이고, 더욱 놀라운 업적을 쌓을 오메가. 한국에서 개최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오메가에 28번째 올림픽이다. 올림픽과 스포츠에 열정을 기여한 명성과 신뢰를 국내에서 엿볼 날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 1백 년간 올림픽 타임키퍼로 활약할 오메가와 함께 1000분의 1초를 가르는 승부의 세계

우리나라 역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가장 많이 획득한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쇼트트랙이다. 양궁보다도 많은 메달 수를 기록한 종목으로, 국민들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기대하고 있는 것 또한 그 때문이다. 1000분의 1초 차이로 우승하는 짜릿함도 여러 번 맛봤다. 대한민국이 쇼트트랙 강국이 되고 많은 금메달을 획득한 배경에는 정확한 계측이 가능한 시간 측정 기술이 있다. 바로 오메가처럼 말이다. 오메가는 1932년 LA올림픽부터 지금까지 올림픽 공식 타임키퍼로서, 올림픽 역사와 궤를 같이했다. 1952년 타임 레코더를 개발해 100분의 1초에 가까운 시간까지 측정할 수 있게 했으며, 1968년에는 수영 선수들이 직접 시계를 멈추도록 터치 패드를 고안해 타임키퍼의 역사를 새로 쓰기도 했다. 운동 경기 기록만 전담하는 오메가 타이머라는 계열사를 둘 정도로 초정밀 계측에 대한 연구를 아끼지 않던 오메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의 파트너십을 2032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1932년 올림픽과 인연을 맺은 이후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까지 '1백 년 인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삼성, 코카콜라, 맥도날드 등 내로라하는 글로벌 기업이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올림픽을 후원하지만, 12년 계약 연장을 한 사례가 전무한 만큼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오메가의 돈독한 관계와 신뢰는 실로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D-100 오메가 갈라 디너 평창 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10년,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에서 고매를 마시고 세 번째 도전 만에 평창의 꿈이 실현된 걸 떠올리면 감회가 새롭다. 오랜 기다림이 있었기에 지난 11월 1일 서울 중구 소공동에 위치한 웨스

틴 조선 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D-100 오메가 갈라 디너' 행사의 의미는 더욱 특별하다. 각계각층 인사와 오피니언 리더 및 영화계를 방불케 할 만큼 많은 톱스타가 참석해 한 마음 한 뜻으로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최를 기원한 것. 피겨 퀸이자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 김연아가 화이트 롱 드레스 치림으로 우아한 여신 미모를 뽐냈고, 배우 정우성, 이정재, 장미희, 김산아, 모델 장윤주, 이현이, 가수 선 & 배우 정혜영 부부, 가수 정진운, 모델 변정수 & 변정민, 펜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상영, 리듬체조 선수 출신 신수지 등이 참석해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며 각자의 소원을 담은 메시지를 작성했다. 그 메시지들은 행사장 외부에 설치된 풍등에 달려 전시되어 올림픽 성공을 향한 수많은 이들의 염원을 대변하며 행사장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다. 축하 공연을 펼친 동계올림픽 홍보대사 가수 인순이와 힙합 가수 다이아미 듀오의 열정적인 무대까지 이어졌고, 행사를 주최한 오메가는 올림픽 공식 타임키퍼로 활동해온 자신들의 기술력과 역사를 소개하며, 올림픽에서 오메가가 지니는 상징적인 의미를 되짚기도 했다. 올림픽은 세계에서 가장 감동적인 행사 중 하나다. 스포츠를 통해 화합의 메시지는 물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희로애락의 감정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올림픽 현장에서 오메가가 자신들의 경험과 기술력을 확인시켜줄 날이 다가오고 있다.

## 오메가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 타임피스

평창이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될 때까지 오랜 기다림이 있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래서 더 특별한 겨울이 동계올림픽이 될 터. 28번째 올림픽 공식 타임키퍼로 선정된 오메가의 독창적인 타임피스를 소장한다면, 그 의미와 감동을 더 깊이 간직할 수 있지 않을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 타임피스의 첫 번째 모델은 '오메가 씨마스터 플래닛 오션 평창 2018'이다. 태극기를 상징하는 선명한 블루, 레드 컬러와 더불어 최고 수준의 정밀도와 성능을 자랑하는 마스터 크로노미터를 장착하고 있다. 레드 컬러의 리버로 라인링 처리한 블루 스트랩 외에 여분의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이슬릿을 함께 스페셜 박스로 구성했다. 두 번째 시계 '오메가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평창 2018'은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으로, 블루 다이얼 미닛 트랙 위에 오륜기의 다섯 가지 상징적 컬러를 사용해 'PyeongChang 2018'이라는 문구를 새겨 넣은 것이 포인트다. 투명한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 백에도 'Olympic Games PyeongChang 2018' 로고를 새겨 특별한 의미를 더한다. 2,018개 한정판으로 41mm 케이스의 옆면에 리미티드 에디션 넘버가 각인되어 있다. 각국의 선수가 한국에서 올림픽 정신을 나누는 것을 직접 볼 수 있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국 국민 모두에게 일생일대의 추억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곁에는 오메가가 함께 자리할 것이다. 올림픽의 기운과 어운이 담긴 특별한 워치 박스와 함께, 그리고 정확한 계측으로 경기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순간과 함께! 문의 02-511-5797 에디터 배미진



Sponsored by OMEG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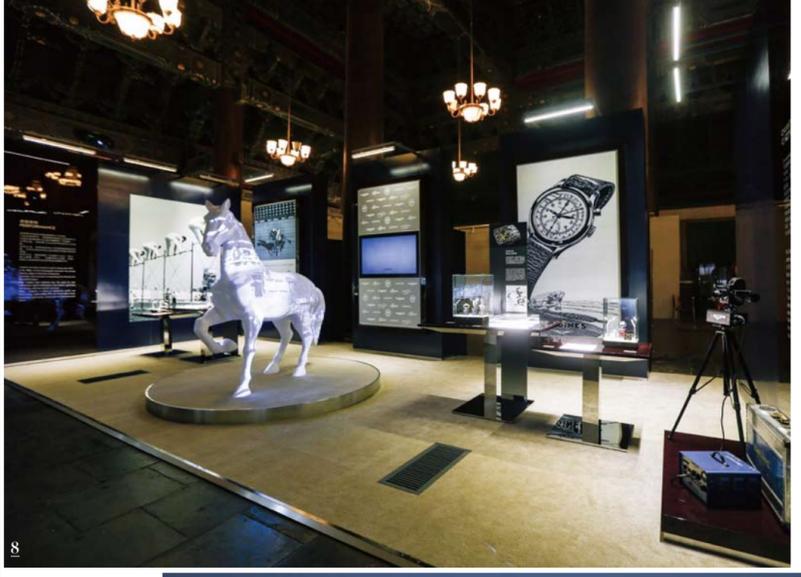


# the most honored Watch

지난 11월, 베이징에서 개최한 론진 탄생 185주년 기념 행사에서 감동적인 부분은 이벤트가 펼쳐진 태묘 전체를 아우르는 스케일과 유럽의 어느 행사를 방불케 하는 우아한 분위기였다. 중국에서 놀라울 정도로 큰 사랑을 받는 이 클래식한 브랜드의 가치는 행사의 규모와 스타일, 그리고 월터 본 캐넬(Walter von Känel) 사장의 자부심 넘치는 스피치에서 진면목을 드러냈다. 한국 시장에서 제2의 도약을 꿈꾸는 론진의 미래를 베이징에서 미리 엿보았다.

## 185년의 역사, 스위스 메이드 워치의 가치를 재조명하다

185년 역사의 스위스 정통 워치메이킹 론진(LONGINES)이 이 오랜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남기기 위해 베이징 자금성 옆에 위치한 태묘(taimiao)에서 아름다운 시간을 펼쳐 보였다. 185년간 이어진 론진의 역사, 이를 기념하는 레코드 컬렉션 론칭, 브랜드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론진의 새로운 앰배서더 조려영(Zhao Li ying)의 데뷔 무대까지, 스위스 시계 브랜드로서의 론진의 가치, 아시아 지역에서 브랜드가 차지하는 위상을 보여주는 남다른 자리였다. 이 행사를 지켜보며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은 론진의 브랜드 가치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었다. 이 놀라운 규모의 행사를 개최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브랜드의 위상을 국내에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 말이다. 행사가 펼쳐진 자금성에 위치한 태묘는 명나라와 청나라 시절 황제와 황후의 위패를 모신 황실 사당으로, 론진의 위상에 걸맞는 역사적인 장소다. 이곳을 1832년부터 시작된 브랜드의 명성 높은 워치메이킹과 타임키퍼 역사를 찬사하기 위한 공간으로 재구성해 스위스 샹티미에 지역 론진 박물관에서 직접 공수해 온 특별한 타임피스들을 전시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빈티지 포켓 워치, 시간 측정 장치, 초기의 손목시계, 브랜드의 가장 상징적인 현대 기계와 더불어 자료 사진, 광고, 영화, 기록물을 통해 브랜드의 과거도 확인할 수 있었다.



## 새로운 역사의 발견, 론진

1832년 스위스 샹피미에 지역에서 탄생한 론진은 어느 유서 깊은 스위스 워치메이킹 브랜드처럼 깊은 역사를 지니고 있다. 브랜드 론칭 초창기부터 해외, 특히 중국과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에 시계를 수출할 만큼 폭넓은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 론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기록도 보유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10개의 시계 관련 그랑프리를 수상한 유일한 브랜드다. 1885년부터 1929년까지 세계적인 박람회에서 최초로 10개의 상을 받았으며, 대부분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노하우, 시계 품질에 관련된 수상이었다. 1900년에 론진은 브랜드 가치 자체로 파리 세계박람회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한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그 때문에 론진을 미국에 소개하는 에이전트에서는 브랜드를 홍보할 때 가장 영광스러운 시계(The Most Honored Watch)로 표현한다.

또 론진의 로고를 들여다보면 브랜드가 추구하는 방향을 잘 알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워딩 시계, 커플 시계 혹은 여성용 주얼리 시계로 잘 알려진 론진의 히스토리에는 비행과 항해, 측정이라는 남성적인 키워드가 핵심을 이룬다. 브랜드 로고 아래쪽을 보면 모래시계와 날개가 표현되어 있는데, 모래시계는 흘러가는 시간을 상징하는 동시에 시간을 측정하는 도구를 의미한다. 양쪽으로 펼쳐진 날개는 비행과 항해, 그리고 역동성을 의미하는데, 그러한 날개가 달린 모래시계는 시간을 측정하고 비행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임을 상징화한 것이다. 로고에 담긴 브랜드가 추구하는 방향은 브랜드 역사 속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1919년 론진은 국제항공연맹의 공식 공급업체로 지정되어 다양한 항로 개척과 비행 기록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조종사를 위한 시계를 개발했고, 이 라인들은 여전히 론진의 판매 제품으로 남아 있다. 1932년에는 아멜리아 에어하트가 최초의 여성 비행사로서 아메리카 대륙과 대서양을 논스톱으로 비행하는 데 힘을 보탤 때, 1964년 도널드 캄벨이 648,565km/h의 속도로 새로운 자동차 속도 기록에 도전하는 현장에서 이를 기록한 타임키퍼로 이름을 알렸다. 이러한 브랜드 스토리를 홍보하기 위해 탄생 185주년 행사를 베이징에서 개최하고 전시회와 히스토리 북 <Longines Through Time>을 선보이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이기에 이번 행사의 의미는 더욱 깊다고 할 수 있다. 이 히스토리 북은 론진 인터내셔널 브랜드 헤리티지 매니저 스테파니 라캇(Stéphanie Lachat)이 총괄해 출판한 것으로, 론진이 진보를 이루어온 지난 2세기 동안의 워치메이킹 트레이디션과 헤리티지를 담았다. 론진의 모든 컬렉션에 깃든 우아함과 우수성에 대한 브랜드의 헌신을 강조한 역사 깊은 전통과 혁신의 매끄러운 조화를 소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 브랜드의 가치를 담은 레코드 컬렉션

이 행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인공은 새로운 앰배서더 조려영과 브랜드의 역사를 기념하는 레코드 컬렉션이다. 론진은 여러 앰배서더와 함께하고 있는데, 영화 <타이타닉>의 히로인 케이트 윈슬렛, <텐타리스트>에서 놀라운 연기를 보여준 호주 출신 배우 사이먼 베이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테니스 선수로 꼽히는 안드레 아가시, 여성 테니스계의 아이콘 스테파니 그라프가 그 주인공이다. 조려영은 중국의 신예 배우 <포브스>의 TOP 100 중국 셀러브리티 중 4위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지녔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인공인 레코드 컬렉션은 론진이 185년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가치를 담은 새로운 컬렉션으로, 워치메이킹 브랜드의 전통에 따른 클래식한 우아함과 우수성을 결합한 오토매틱 타임피스다. 독특한 싱글 크리스털 실리온 밸런스 스프링의 무브먼트를 장착해 정확성이 뛰어나다. 스위스 공식 크로노미터 인증 기관(COSC)에서 인증받은 론진 최초의 제품으로, 레코드 컬렉션의 모든 타임피스에 이 크로노미터를 장착해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 이렇듯 전문화된 워치메이킹을 통해 전통과 우아함, 기계적 시계의 퍼포먼스까지 아우르는 론진은 스위스 메이드 워치에 매력을 느끼는 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되어줄 것이고, 완성도 높은 시계의 가치가 더욱 확장되고 있는 국내 시계 시장에 풍부한 자양분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에디터 베이징(베이징 현지 취재)



1, 3 태묘에서 개최한 론진 탄생 185주년 이벤트. 브랜드의 히스토리와 우아함, 우수성까지 함께 담은 멋진 행사였다. 2, 8 스위스 론진 박물관에서 공수해 온 브랜드 아카이브를 표현한 공간. 론진은 승마 분야에서도 높은 위상을 지니고 있다. 4 20년 이상 론진을 이룬 월터 본 캐넬 사장. 5 무브먼트를 표현한 행사장 입구. 6, 7 론진 탄생 185주년을 기념해 출시한 레코드 컬렉션. 9 이번 행사를 통해 앰배서더로 새롭게 발탁된 중국의 여배우 조려영과 론진을 이끌어가는 임원진. 10, 11 론진 레코드 컬렉션의 광고 캠페인.



# time Architecture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의 디자인 모티브를 담은 시계는 어떤 모습일까. 스위스 워치 브랜드 미도(MIDO)가 언제나처럼 유서 깊은 건축물과의 새로운 컬래버레이션을 알렸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건축학적 디자인 요소를 한정판 시계에 담으며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준 것. 지난 10월 27일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개최된 미도의 갈라쇼 현장을 직접 취재했다.

## 미도(MIDO), 구겐하임을 만나다

지난 10월 27일 저녁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Solomon R. Guggenheim Museum). 공중 댄서들이 구겐하임 미술관의 심장인 중앙 아트리움에서 미도의 상징인 주황색 실크 천을 이용해 공중 곡예를 선보이며 미도 구겐하임 워치의 탄생을 기념하는 갈라 디너가 시작되었다. 미도의 CEO 프란츠 린더가 직접 5백 피스 한정판 구겐하임 리미티드 에디션(Guggenheim Limited Edition)을 선보였고,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이 건축물의 나선 구조와 원형 홀에서 모티브를 얻어 완성한 미도 시계 컬렉션은 새 생명을 부여받았다. 막진 감 넘치고 역동적인 행사장의 모든 요소는 구겐하임과 미도의 새로운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 움직였고, 매력적인 곡선과 선명한 컬러, 예술적인 자태를 담은 시계는 파티의 주인공으로서 당당한 모습을 드러냈다. 미도 위치와 건축물의 관계는 너무나 핵심적이고 의미심장한 파트너십이다. 렌 오메라하우스에서 영감을 받은 바론첼리 컬렉션, 시드니 하버 브리지에서 모티브를 얻은 멀티 포트 컬렉션, 콜로세움의 건축적 요소를 고스란히 담은 올 다이얼 컬렉션 등 미도의 모든 시계는 유서 깊은 건축물과 궤를 같이한다. 구겐하임 미술관 역시 이러한 미도의 히스토리를 기념하는 또 하나의 발견이다.

## 소셜 미디어를 통해 대중의 소리를 듣다

미도의 새로운 모티브가 되어줄 건축물을 찾기 위한 여정은 시작부터 특별했다. 이미 지난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 12주간 SNS를 통해 새로운 모티브가 될 건축물에 대해 투표를 진행해 공식적으로 데뷔 무대를 가진 것. #BeInspiredbyArchitecture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브랜드에 새롭게 영감을 선사할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찾으며 미도 애호가와 일반 소비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든 것이다. 소비자들은 소셜 미디어에 자신이 원하는 건축물에 대한 의견을 게시했고, 이 캠페인은 미도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통해 더욱 확장되어 특별한 파급력을 갖추게 되었다. 홍콩을 시작으로 베이징, 모스크바, 도쿄, 뉴욕, 멕시코 시티, 서울 등 주요 12개 도시와 60개의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등장했고, 그 결과 구겐하임 미술관이 선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남대문이 거론되기도 했다. 최종 확정된 건축물인 구겐하임의 모티브는 시계의 다이얼과 케이스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다이얼 바탕에 파인 6개의 얇은 홈은 구겐하임 미술관 내부 천장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고, 케이스 외부의 나선형 모티브는 구겐하임 미술관 외관의 나선 모티브를 고스란히 담은 것이다. 8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갖춘 ETA 무브먼트와 실리곤 헤어스프링을 통해 스위스 시계 브랜드의 자부심을 대변하는 미도의 높은 완성도까지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시계의 구조적 미학과 스위스 메이드 위치의 완성도,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춘 미도의 워치 컬렉션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 구겐하임 컬렉션. 미도의 앞날을 더 기대하게 하는 이유다. 에디터 배미진/뉴욕 현지 취재



Interview with Franz Linder (CEO)

건축물에서 영감을 받는 미도의 워치 컬렉션은 매우 독특하다. CEO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컬렉션은 무엇인지? 개인적으로 카렌더 컬렉션을 가장 좋아한다.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카렌더 컬렉션은 미도의 DNA를 가장 많이 담고 있다. 원형경각심을 그대로 보는 듯한 다이얼과 콜로세움 외벽의 디테일을 담은 브레슬렛이 유니크한 것을 뽑는다. 세계적인 미술관인 구겐하임과 스위스 워치 브랜드, 미도의 공통점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구겐하임 미술관은 원형이 레이어드된, 어느 건축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이 건축물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아름답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이는 바로 미도가 추구하는 타임리스와 같은 의미다. 타임리스, 유일무이함이 돋보이는 것이 구겐하임과 미도의 공통점이 라고 할 수 있다. 스위치 그룹에 속한 미도의 CEO로서 스위스 메이드 위치의 특별한 점을 이야기해준다면? 스위치 그룹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ETA라는 최고의 무브먼트를 생산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고품질의 무브먼트를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곧 가성비 높은 시계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해준 가장 큰 요소이며, 미도를 가격 면에서 정직한 브랜드로 만들어주는 원동력이다.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 기계식 워치를 젊은 세대가 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면? 휴대폰은 말 그대로 통화를 위해서 만든 물건이다. 그러나 시계는 인간의 본성과 감성을 자극하며, 자신만의 스토리를 담아내는 도구다. 대를 물려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안정성이 높으며, 정확성이 뛰어난 것은 미도 시계의 장점이다. 또 휴대폰은 배터리를 충전해야 하고, 방전이 되어 꺼질 수도 있지만, 기계식 워치는 내가 움직이면 함께 움직이는, 나와 한 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물이다.

● sponsored by MIDO



**Bella & Remix Collection**  
(왼쪽부터 차례로) 볼드한 블랙 크리스탈이 돋보이는 벨라 이어링 6만9천원. 다양한 세이브의 디자인과 크리스탈 장식의 조화가 돋보이는 리믹스 컬렉션 브레이슬릿. 크리스탈 볼 모양의 마그네틱 클로저로 제품을 연결해, 브레이슬릿뿐 아니라 네크리스, 초커, 헤어밴드로 자유로운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각 11만원대. 모두 스와로브스키.

**Halve & Crystalline Pure**  
(왼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 별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시킨 할브 컬렉션. 2개의 롱 드롭 이어링과 별 모양의 스타드 이어링을 한 세트 구성해 스타일링에 따라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할브 이어링 16만5천원, 8백50여 개의 클리어 크리스탈로 배열을 장식한 크리스탈린 퓨어 워치 63만원, 로즈 골드 플레이팅에 블랙과 화이트 크리스탈의 조화로 반짝임을 배가한 할브 네크리스 14만5천원 모두 스와로브스키.

# merry Crystall

로맨틱한 크리스마스와 특별한 모임이 가득한 연말연시. 당신의 그녀를 가장 돋보이게 해줄, 눈부신 반짝임을 안겨줄 스와로브스키에서 제안하는 크리스마스 기프트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Crystalline Hours & Sparking Dance**  
이른바 워치러 시계 방향으로! 다이얼 위에 세팅된 눈이 내린 듯 2천 개의 크리스탈을 정교하게 배치한 크리스탈린 아워스 워치 54만5천원. 중심에는 고스펙무브먼트를 탑재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스파클링 댄스 네크리스 18만5천원, 스파클링 댄스 이어링 13만원 모두 스와로브스키.

**Heroism & Octea Nova**  
(왼쪽부터 차례로) 파베 디테일을 다룬 깔끔한 상리형 실루엣과 로즈 골드 플레이팅이 조화를 이루는 볼드한 그래픽 디자인의 헤로이즈 네크리스 11만원대, 헤로이즈 드롭 이어링 14만5천원, 68면으로 이루어진 크리스탈 패시브 디테일로 어느 각도에서 봐도 아름다운 반짝임을 선사하는 스파이어 글라스 소재의 옥레이 노바 워치 60만원 모두 스와로브스키. 문의 1661-9060 에디터 이지연





# Romantic butterfly

유명 아티스트와 협업해 만든 매력적인 패키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소장 가치가 높은 홀리데이 에디션! 여기, 하이 프레스티지 코스메틱 브랜드 데코르테(Decorté)가 홀리데이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마르셀 반더스 컬렉션 2017 페이스 파우더를 12월 한정으로 선보이니 눈여겨보자.

## 홀리데이 판타지를 담은, 데코르테 마르셀 반더스 컬렉션 2017 페이스 파우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 평범한 일상에 약간의 사치를 더해줄 홀리데이 에디션이말로 최고의 선물 이 아닐까. 특히 지금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뷰티 브랜드의 홀리데이 컬렉션은 당장이라도 뷰티 컬렉터의 지갑을 열게 할 마법 같은 존재다. 데코르테는 세계적인 아티스트 마르셀 반더스(Marcel Wanders)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탄생한 마르셀 반더스 컬렉션 페이스 파우더를 새롭게 선보인다. 네덜란드 출신의 디자이너 마르셀 반더스는 1996년 선보인 매듭 의자(Knotted Chair)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은 인물. "기적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는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것을 완성하고자 하는 데코르테의 감성과도 잘 통했기에 2010년부터 데코르테의 아트 디렉터로 활동하는 등 깊은 인연을 맺어왔다. 그는 데코르테의 하이엔드 라인으로 손꼽히는 AQ 프리미엄 라인의 화장품 보틀을 디자인했을 뿐 아니라 2011년부터는 매해 홀리데이 에디션 작업을 함께 했고, 이번이 일곱 번째 콜라보레이션이다. 작품마다 그만의 판타지를 주입해왔는데, 이번 컬렉션은 아름답게 날갯짓하는 나비의 우아한 자세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시켰다. 비주얼 이미지에서도 느껴지듯이 어떤 여성의 피부든 실크처럼 매끄럽게 바꾸어주는 마법의 나비를 표현한 것. 데칼코마니를 연상시키는 예술적인 패키지를 열면,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파우더에 음각되어 있는데, 이는 리미티드 파우더라는 특별한 가치를 부각한다.

파우더에 작작나무 수액을 섞어 압축시킨 후, 12시간 이상 천천히 건조시키는 데코르테만의 럭셔리하고 세밀한 파우더 압축 기술인 소프트 프레스 공법을 사용해, 놀랄 만큼 가볍고 부드러운 감촉을 선사한다. 베이스 메이크업을 마친 후 화장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톡톡 가볍게 얼굴에 두들겨 주면, 부드러운 가루 형태의 파우더 입자가 피부에 가볍게 밀착되어 땀과 피지에도 잘 지워지지 않고 오래도록 환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인 아티스트 마르셀 반더스와의 일곱 번째 협업 컬렉션 페이스 파우더는 12월 1일부터 데코르테 백화점 매장에서 한 달 동안만 판매하니, 특별한 패키지를 소장하고 싶다면 당장 서두를 것. 문의 080-568-3111 에디터 이자현



1, 5 홀리데이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이는 마르셀 반더스 컬렉션 2017 페이스 파우더. 2 마르셀 반더스가 디자인한 데코 오브제. 3 네덜란드 출신의 공예 디자이너 마르셀 반더스(Marcel Wanders). 4 판타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가 작업한 데코르테 홀리데이 에디션을 위한 드로잉 스케치.



● sponsored by DECORTÉ

# Winter essential

찬 바람과 뜨거운 히터로 이중고를 겪는 겨울 피부를 단 한가지 방법으로 지킬 수 없다. 한결같은 데일리 케어와 영양 공급, 재생을 위한 집중 케어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 샤넬의 프리미엄 스킨케어 라인인 수블리마지라면 겨울철 피부 체력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 데일리 케어를 위한 안티에이징 미스트

공드 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듯, 꾸준히 정성 들인 피부는 급격한 기온의 변화나 건조한 대기에 노출된 환경에서도 쉽게 굴하지 않는다. 샤넬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페이스 미스트 수블리마지 라 브럼은 하루에 한 번이 아닌, 피부가 수분과 영양 공급을 원할 때면 언제라도 활용 가능한 아이템이다. 샤넬의 프리미엄 라인 수블리마지의 제품인 만큼 일반적인 미스트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세 가지 활성 성분이 강력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미스트인 것. 바닐라 플라니폴리아 워터 성분이 항산화 효과를 선사해 피부 리듬을 정상화하고, 실크 나무 추출물은 피부 피로 징후를 완화해 피부 활력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분자량이 각각 다른 세 가지 히알루론산 복합체가 피부에 즉각적으로 수분을 공급하는 동시에 탱글탱글하게 차오르는 효과를 선사한다. 주름과 잔주름 개선 효과는 덩이다. 이 정도면 웬만한 안티에이징 크림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완벽한 미스트 하나가 하루 종일 당신의 피부를 360도로 케어해주는 셈이다. 놀라운 건 성분뿐만이 아니다. 분사되는 물방울의 크기 와 확산 각도까지도 2년간 분석하고 연구해 이룬 결과라니 샤넬의 꼼꼼한 배려와 세심함, 테크놀로지가 다시금 느껴지는 대목이다. 언제 어디서나 손 닿는 곳에 자리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한 샤넬은 이 제품을 핸드백에 속 들어가는 사이즈로 만들었다. 메이크업 전후는 물론 건조한 사무실, 디너 파티 전, 기내 등에서 가볍게 세 번 뿌리면 당신의 피부는 즉시 윤기를 머금으며 서서히 탱글하게 차오를 것이다.

## 극강의 영양 처방, 집중 스페셜 더블 케어

겨울철 찬 바람과 낮은 기온, 건조한 대기와 실내 공기에 시달려 푸석거리고 탄력을 잃은 피부. 이럴 땐 화장품 하나만으로는 피부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 몸을 다스리는 한 찻의 보약처럼 극강의 영양 처방이 간절히 필요하다. 유효 성분이 농축된 안티에이징 오일과 마스크는 집중 관리하기 쉽고 빠르게 손상된 피부를 되돌리는 지름길이다. 첫 번째 스페셜 케어의 시작은 단 한 방울로 강력한 회복 트리트리트 효과를 선사하는 '샤넬 수블리마지 렉스트레'이다. 이는 그린 다이아몬드 불리는 바닐라 플라니폴리아 앞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함유해 피부 표피층에 빠르게 스며들어 모든 노화 징후에 대응한다. 수블리마지 렉스트레는 수블리마지의 장수로 통하는 제품으로 피부 재생, 회복, 그리고 보호까지 책임지는 아이템이니만큼 피부 손상이 심화된 상태에서는 더욱 드라마틱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텍스처도 남다르다. 크림도, 젤도, 플루이드도 아닌 형태로, 처음에는 묵직한 질감이지만 녹기 시작하면서 은은한 막으로 변화하고, 이내 피부 표면에 벨벳처럼 덮인다. 집중적인 피부 회복이 필요할 때 하루에 한 두 번, 특히 피부가 지칠 대로 지친 저녁, 수블리마지 렉스트레를 한 방울 떨어 얼굴 중간에서 바깥쪽으로 바르면 피부는 본연의 힘을 되찾고 자기 재생력으로 무장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더할 쉽고 빠른 스페셜 케어는 단연 '수블리마지 마스크'다. 이는 피부 재생과 영양 공급에 탁월한 기능을 겸비해 마스크만으로도 토탈 안티에이징 케어가 가능하다. 피부를 위한 모든 생명 인자에 작용해 피부를 재건하고, 피부 세포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독보적인 활성 성분을 함유한 덕이다. 일주일에 1~3회 정도 자기 전, 내장된 브러시를 활용해 얼굴에 퍼 바른 뒤 10분 뒤 타슈로 닦아내면 피부의 촉촉함과 매끄러움, 편안함이 다음 날 아침까지 그대로 유지됨을 단번에 느낄 수 있다. 보다 강력하고 스페셜한 더블 케어를 원한다면 수블리마지 마스크에 수블리마지 렉스트레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바르는 방법을 활용해보자. 꾸준히 관리하다 보면 노화가 찾아올 틈도 없이 보다 젊고 건강한 피부의 주인공이 되는 즐거움을 만끽하게 될 것이다. 수블리마지 라 브럼 18mlX3개입(리플롬) 32만1천원, 수블리마지 렉스트레 15ml 63만8천원, 수블리마지 마스크 50ml 26만5천원. 문의 080-332-2700 에디터 권유진



● sponsored by CHANEL



“ 비싼게 좋은건가?  
친구가 추천하는게 좋은건가?  
후기 많은게 좋은건가? ”



관건강, 장건강, 눈건강도  
이젠 정관장으로



“ 남들이 먹는게 좋은건가?  
직구로 사는게 좋은건가?  
방송에 나오는게 좋은건가? ”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도  
이젠 정관장으로



\*EPA및 DHA함유유지

# 정관장의 스마트한 건강 제안 알파프로젝트 & 굿베이스

추운 날씨 때문에 자꾸만 몸이 움츠러드는 겨울철, 연이은 야근과 잦은 회식, 송년 모임이 이어지는 연말 시즌에는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118년 전통의 대한민국 건강기능식품 대표 브랜드 정관장이 만든 알파프로젝트와 굿베이스가 겨울철 건강 관리 그리고 연말 술 모임을 극복하는 처방전을 내놓았다.

글. 박훈희(PLAY)

## 연말 회식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정관장 알파프로젝트

직장인에게 가장 피곤한 달로 여겨지는 12월. 연말 결산 보고서와 차기년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느라 야근하기 일쑤인 데다 잦은 연말 회식에 빠짐 없이 참여해야 하고, 지인들과의 송년 모임도 지나칠 수 없으니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 쉽다. 그렇다고 야근, 회식, 송년 모임을 마냥 피할 수는 없으니, 연말연시야말로 건강식품이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을 고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 몸의 이상 증세에 딱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고르다 보면, '후기가 많은 게 좋은 건가?' '방송에 나오는 게 좋은 건가?' 헷갈릴 때가 많다. 이런 현대인들을 위해 '신뢰받는 건강기능식품 기업'인 정관장이 나섰다. 특정 기능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알파프로젝트'를 통해 눈건강, 간건강, 구강건강, 위건강, 장건강, 관절건강, 혈행건강 총 7종의 건강시리즈를 선보인 것. 정관장의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해서 만든 '알파프로젝트'는 개인의 건강 이슈에 대해 스마트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연말연시 당신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줄 것이다.



SMART HEALTH SOLUTION 알파프로젝트

### 잦은 야근과 회식 때문에 피로가 겹쳤을 때, 알파프로젝트 간건강

'알파프로젝트 간건강'은 정관장이 까다롭게 선정한 유산균발효마늘추출물과 홍경천추출물이 함유된 제품으로, 간 건강은 물론 정신적 피로 개선까지 한 번에 케어해준다. 또한, 판토텐산, 비타민 B1, B2, B6 등 에너지 비타민도 함유되어 신체 활력 충전에 필요한 에너지도 급속 충전해준다.

### 평소 술과 고기 안주를 즐겨 먹는다면, 알파프로젝트 혈행건강

'알파프로젝트 혈행건강'은 혈액 내 중성지방 개선과 혈행 개선 효과가 탁월하기로 유명한 오메가3 중에서도 순도 높은 프리미엄급 오메가3를 주원료로 하며, 유해물질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비타민 E가 함유되었다. 혈행 개선과 기억력 개선을 한 번에 케어해주는 복합 솔루션이다.

### 나뉘 먹고 돌려 먹는 회식 후 헬리코박터균이 신경 쓰일 때, 알파프로젝트 위건강

술잔 돌리기와 짜개 함께 먹기 등 한국인 특유의 식습관이 위 건강을 해치는 헬리코박터균을 키우기 쉽다. 헬리코박터균 증식을 억제하고 위점막을 보호해주는 감초추출물을 주원료로 한 '알파프로젝트 위건강'은 에너지 대사를 돕는 비타민 B1, B2까지 함유된 복합 솔루션이다.

### 술 마신 다음날 아침에 배변이 어려울 때, 알파프로젝트 장건강

'알파프로젝트 장건강'은 맵고 짠 음식을 즐기는 한국인의 장에 맞추어 설계된 10종 복합유산균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이다. 이 제품은 냉동 보관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점이 있다. 특히 받은 4종 코팅 유산균이 실온에서도 100억 함량을 유지하고, 섭취 후에는 살아서 장까지 전달된다.

## 겨울철 필수 건강 메이트, 굿베이스

연말연시에 신경 써야 할 것은 간 건강, 위 건강, 장 건강, 혈액 순환만은 아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 생활이 현저히 늘어나는 겨울에는 신체 내 광합성 부족으로 인해 비타민 D가 부족해져 뼈 건강을 해치기 쉽다. 뼈를 생성시키는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의 결핍으로 인해 뼈의 양이 감소하고 골밀도가 약해져서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부러질 수 있는 것. 이 때문에 빗길이나 눈길, 그리고 빙판길을 걸을 때, 스키나 스노보드 등 겨울스포츠를 즐길 때, 실내에서도 미끄러운 욕실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겨울철 골다공증과 골절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온이 낮아지면서 집 혹은 회사에만 꼭 박혀 있는 실내생활자일수록 비타민 D 섭취에 신경써야 한다. 칼슘은 흡수율이 낮아서 충분한 양을 흡수해야 하고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를 많이 섭취해야 하는데, 낮이 짧은 겨울철에는 광합성을 충분히 하기 어려워 비타민 D 결핍에 이르기 쉽고, 따라서 체내 칼슘 흡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일 해가 있는 시간에 야외에서 운동을 하지 않는 이상 비타민 D를 추가로 섭취해야 한다.



굿베이스의 비타민 D에는 1일 영양기준치를 충족시키는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어, 하루에 한 알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특히 뼈가 성장하는 청소년기, 골밀도가 낮아진 노년기, 임산부 등 뼈 건강에 각별히 신경써야 하는 현대인에게는 굿베이스의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K를 추천한다. 뼈를 생성시키는 영양소인 칼슘과 비타민 D를 비롯해 신경과 근육 유지를 돕는 마그네슘, 단백질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비티민 K까지, 한 마디로 '뼈 건강을 위한 영양소'가 결합된 스마트한 제품이다. 역사와 전통의 기업 정관장의 자연소재 브랜드인 굿베이스의 기초 영양시리즈는 우리 몸에 부족한 활력을 채워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이미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비타민 D와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K 외에도 비타민C, 오메가3, 엽산, 철분, 비타민B 포물라, 멀티비타민미네랄 등 정관장이 까다롭게 선정한 자연유래 영양소이어서 믿고 먹을 수 있다.

### 1일 영양기준치 비타민 D 충족, 굿베이스 비타민 D

뼈를 건강하게 해주는 비타민 D 함량이 10ug로 성인의 1일 비타민 D 영양기준치를 충족시키는 굿베이스 비타민D는 건조효모를 추출한 건강기능식품이다.

### 뼈를 위한 모든 것, 굿베이스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K

굿베이스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K만 있으면 겨울철 뼈 건강은 걱정 없다. 이름 그대로,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와 K 등 건강한 뼈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해조칼슘, 셀발효분말, 건조효모, 자두개자리 등 자연에서 찾은 건강한 원료에서 추출한 것이 특징이다.



기초영양 시리즈 굿베이스

# SHOWROOM



아이잡바

몽클레르



버버리

몽클레르 비아 델라 스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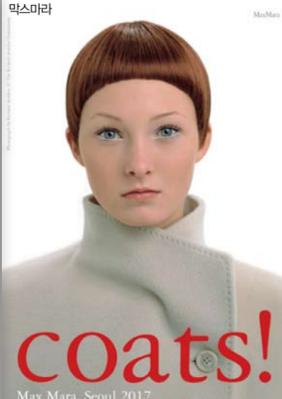
FASHION



동메리농



루이비통



막시마라



정만정

**정만정** **찬눈** 정만정은 격이 다른 프리미엄 녹음 '찬눈'을 출시했다. 엄격한 뉴질랜드 정부와 정만정장의 이중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급격한 체력 저하, 만성 피로 등 기력 회복이 필요한 남녀노소 모두에게 추천한다. 문의 02-2189-3900

**동메리농** **P2 2000** 동메리농은 두 번째 절정기를 맞이한 P2 2000을 출시했다. 16년간 일급 숙성을 거쳐 활기와 아삭아삭함, 밀도가 더해져 깊이 있는 맛을 선사한다. 다가오는 연말,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해줄 샴페인을 찾고 있다면 P2 2000을 추천한다. 문의 02-2188-5100

**루이비통 2018 크루즈 컬렉션 캠페인** 루이비통은 할리우드 배우 알리시아 비칸테르와 함께한 '2018 크루즈 컬렉션 캠페인'을 공개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여행의 정취가 돋보이는 스페인 이비사섬을 배경으로 브랜드의 장인 정신, 우아한 감성이 느껴지는 트윈스트와 카비시 핸드백을 엿볼 수 있다. 문의 02-3432-1854

**아이잡바 버건디 버클 클러치 백** 아이잡바는 고급스러운 감성이 느껴지는 트렌디한 버건디 버클 클러치 백을 선보였다. 버클 디테일로 포인트를 더했으며,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27지 컬러와 소재가 조화를 이루어 따뜻하고 포근한 감성을 전한다. 문의 02-3479-1871

**막시마라 Coats! 전시** 막시마라는 브랜드의 유구한 역사를 담은 (Coats(코트)) 전시를 2017년 11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DDP에서 개최한다. 막시마라 하우스의 시그니처 아이템, 코트의 변천사와 브랜드의 역사, 전통에 대한 이야기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선보인다. 문의 02-3467-8326

**몽클레르 마스터 몽클레르 & 미세스 몽클레르** 몽클레르는 한스타 감성을 담은 새로운 컬렉션 '마스터 몽클레르 & 미세스 몽클레르'를 공개했다. 이번 컬렉션을 위해 새롭게 제작생시킨 다른 재킷에 비

비슷한 컬러를 입혔으며, 전더리스 실루엣에 초점을 두어 오버사이즈로 제작되었다. 문의 02-514-0900

**버버리 연말 선물 아이템** 버버리는 크리스마스를 테마로 한 감각적인 연말 선물 아이템을 선보인다. 라미네이트 코팅으로 광택을 더한 강렬한 색상의 트랜스퍼트와 카 코트, 브랜드 고유의 체크 패턴을 적용한 머플러, 화이트 넘치는 디자인의 액세서리 아이템 등 다양한 라인을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80-700-8800

**몽클레르 비아 델라 스피가 이리스 토트백** 몽클레르 비아 델라 스피가는 2017 F/W 시즌 뉴 아이템, '이리스' 토트백을 출시했다. 우광의 소프트한 악자각으로 제작해 자연스러운 세이프를 연출할 수 있으며, 플랩과 핸들의 패턴에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녹여냈다. 넉넉한 수납공간과 함께 27지 사이즈로 출시해 대체로 온스타일링을 완성해준다. 문의 02-516-9517

**살바토레 페라기오 남성 스페셜 셀렉션** 살바토레 페라기오는 올리데이 시즌을 맞아 남성 고객을 위해 특별히 엄선한 '스페셜 셀렉션'을 선보인다. 와인색 스니커즈, 레드 포인트 타이 등 연말의 화려한 분위기에 걸맞은 고급스럽고 세련된 아이템으로 남성들에게 즐거운 쇼핑 기회를 선사할 예정이다. 문의 02-3430-7854

**마이클코어스 LOVE 컬렉션** 마이클코어스는 올리데이 시즌을 맞아 소프트 핑크 컬러 버블의 화려한 골드 장식 조합이 특징인 'LOVE' 컬렉션을 공개했다. 다양한 아이템 중 '미니 크로스바디 백'은 사랑스러운 핑크 컬러에 금장 'LOVE' 장식과 태슬 스트랩이 포인트로, 올리데이 시즌 사랑스러운 데이트 룩을 완성해줄 것이다. 문의 02-546-60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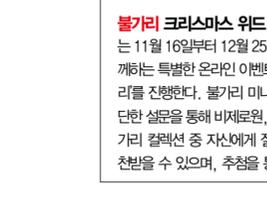
## JEWEL & WA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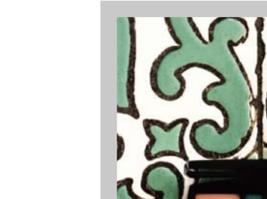
**몽블랑 4810 데이트** 오토매틱 몽블랑은 은은한 기묘세 다이얼과 레드 골드 포인트를 더한 '4810 데이트 오토매틱'을 공개했다. 레드 골드도 도금한 미닛 핸즈와 인덱스는 슈퍼 루미노바 코팅 처리해 어둠 속에서도 최적의 가독성을 선사하며 우아한 엘라게이터 가죽 스트랩과 스틸 스트랩 2가지로 선보인다. 문의 1670-4810



**론진 마스터 컬렉션** 론진은 브랜드 고유의 클래식한 우아함과 우수한 품질로 제작한 '론진 마스터 컬렉션'을 공개했다. 세련된 문패에 매력적인 블루 스틸 핸즈를 더했으며, 셀프-와인딩 무브먼트와 다양한 스페셜 기능을 제공한다. 문의 02-310-1597



**리처드 밀 RM 023** 리처드 밀은 남녀 모두 착용 가능한 RM 023을 선보인다. 5등급의 티타늄 소재를 사용해 매우 견고하며, 약 55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한다. 가벼운 무게, 가벼워진 핸즈, 그래픽적인 디자인 등 여유로운 라이프스타일 무드를 느낄 수 있다. 문의 02-512-1311



**리처드 밀 코코 워치** 샤넬은 브랜드 시그니처 컬링 백인 2.55 백의 잠금장치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시킨 새로운 워치 '코코 워치'를 소개한다. 다이얼 중심에 위치한 이 특별한 잠금장치를 여담음에 따라 다이얼이 나타나기도, 사라지기도 하는 독특한 시계로, 워치와 브레이슬릿 2가지 모두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2-3442-0962



**미도 구겐하임 리미티드 에디션** 미도는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영감을 얻은 '구겐하임 리미티드 에디션'을 새롭게 출시한다. 달걀 껍질이 형상화해 그려진 마감을 화이트 컬러 다이얼 바탕에 얇게 6개의 홈을 파서 미술관 내부 천장의 모습을 표현했으며, 8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한다. 문의 02-3149-9599



**불가리 크리스마스 워드 불가리 이벤트** 불가리는 11월 16일부터 12월 25일까지 풍성한 선물을 함께 하는 특별한 온라인 이벤트 '크리스마스 워드 불가리'를 진행한다. 불가리 미니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간단한 설문응답을 통해 비제로원, 디바스 드림, 불가리 불가리 컬렉션 중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주얼리를 추천받을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불가리 대표 컬렉션

의 주얼리를 선물 받는 행운을 잡을 수 있다. 문의 02-2056-0171

**스워브스키 할브 컬렉션** 스워브스키는 별에서 영감을 얻은 추상적인 디자인의 '할브' 컬렉션을 선보인다. 로즈 골드 플레이팅에 블랙 크리스탈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모던한 반짝임을 자랑한다. 이어링 세트는 2개의 롱 이어링과 스타드 이어링 1개로 구성되어 롱 실루엣 이어링을 클래식하게 혹은 언밸런스하게 연출할 수 있는 실용적인 아이템이다. 문의 1661-9060

**티파니 T컬렉션** 티파니는 크리스마스 홀리데이 기프팅 시즌을 맞아 둘만의 사랑을 상징하는 커블 이어링으로 Tiffany T 컬렉션의 T Two 링과 브레이슬릿을 추천한다. 티파니 T Two 링은 기존의 디자인에서 두께를 줄인 내로 링을 추가로 선보여 선택의 폭을 더욱 넓혔으며, T Two 한지드 브레이슬릿은 남녀가 함께 착용할 수 있는 커블 이어링으로 제작이다. 문의 02-547-9488

**펜디 셀라리아 컬렉션** 펜디는 추위로 다양한 컬러의 워치 스트랩을 교체할 수 있는 '셀라리아' 컬렉션을 출시했다. 하나의 페이스에 선택한 스트랩에 따라 스타일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매력적인 제품으로, 깔끔한 라운드 케이스와 유니크한 자개 다이얼, 고급스러운 로마자 인덱스가 함께 어우러져 세련되고 클래식한 감성을 선사한다. 문의 02-3284-1300

**샤넬 코드 코코 워치** 샤넬은 브랜드 시그니처 컬링 백인 2.55 백의 잠금장치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시킨 새로운 워치 '코코 워치'를 소개한다. 다이얼 중심에 위치한 이 특별한 잠금장치를 여담음에 따라 다이얼이 나타나기도, 사라지기도 하는 독특한 시계로, 워치와 브레이슬릿 2가지 모두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2-3442-0962

**미도 구겐하임 리미티드 에디션** 미도는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영감을 얻은 '구겐하임 리미티드 에디션'을 새롭게 출시한다. 달걀 껍질이 형상화해 그려진 마감을 화이트 컬러 다이얼 바탕에 얇게 6개의 홈을 파서 미술관 내부 천장의 모습을 표현했으며, 8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한다. 문의 02-3149-9599



리처드 밀



불가리



미도



샤넬



**샤넬 데코르테** 데코르테 10 크로스비 **DEREK LAM 10 CROSBY**



데코르테

**데코르테 10 크로스비 향수 컬렉션** 데코르테 10 크로스비는 뉴욕 크로스비 스트리트의 스타일리시한 여성들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은 '향수 컬렉션 10종'을 선보였다. 풍성한 플로럴 향부터 로맨틱한 활기치, 총 10가지 향을 담은 화이트 보틀은 심플하고도 럭셔리한 무드가 돋보인다. 문의 02-3443-1805

**샤넬 2018 스프링 메이크업 컬렉션 프레젠테이션** 샤넬은 지난 10월,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메이크업 & 컬러 디자이너 루치아 피카와 함께 '2018 스프링 메이크업 컬렉션 프레젠테이션' 행사를 진행했다. 신사동 K현대미술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컬렉션에 영감을 준 나폴리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전시했으며, 루치아 피카의 메이크업 데모를 배울 수 있는 특별한 클래스도 진행했다. 문의 080-332-2700

**데코르테 AQMW 페이스 파우더** 데코르테 부케 데코르테는 연말을 맞아 마음을 더욱 살려주게 해줄 'AQMW 페이스 파우더' 이타널 부케를 한정량으로 선보인다. 깃털처럼 가벼운 파우더가 모공을 자연스럽게 케어하고 화장이 오래 유지되도록 도와주며, 고온 피복결과 투명하게 빛나는 광택감을 연출한다. 문의 080-568-3111

**조르지오 아르마니 아쿠아 디 지오 프로퓨모 스페셜 블랜드** 조르지오 아르마니

나는 강인한 남성성을 담은 '아쿠아 디 지오 프로퓨모 스페셜 블랜드'를 선보였다. 엄격하게 윤리에 기반한 공정을 통해 재배한 파슬리를 베이스로 삼아 해외 이국적인 우디향을 더해 매력적인 분위기를 연출해준다. 문의 080-022-3332

**프라다 라팜 오 인텐스** 프라다는 고급스러운 사피아는 가죽 무늬와 알파노 로고를 새긴 반원 형태의 보틀 디자인이 돋보이는 라팜 오 인텐스를 출시했다. 향긋한 플로럴 향과 상쾌하고 싱그러움 오렌지 불러시가 풍부하게 어우러져 고급스러우면서도 선유할 수 있는 느낌을 선사한다. 문의 02-3443-1805



조르지오 아르마니

프라다

LIFESTYLE

BEAUTY